

Contents | 목차



해외소식

- 05 **나마스페, 동게스와리(인도)**
사람을 살릴수(水)도 죽일수(水)도 있는 소중한 물 이야기 | 정수진
- 08 **살라맛, 민다나오(필리핀)**
수해로 고통받는 필리핀에 JTS의 손길을 | 송지홍
- 11 **밍글라바, 미얀마**
미얀마에 행복의 씨앗을! | 김성현
- 14 **아빠 까바르, 인도네시아**
라마단도 끝났으니 이젠 좀 먹으면서 하자! | 임희성
- 17 **쭌리읍수어, 캄보디아**
비 갠 뒤 무지개를 기다리며 | 박병수



국내소식

- 20 **함께 나누는 사랑**
JTS 국제구호활동가 교육을 소개합니다!
해외 파견자 인터뷰 - 필리핀 편
- 26 **아름다운 나눔, 착한 결혼**
JTS와 함께 하는 '착한 결혼, 행복 기부' | 편집부
- 31 **JTS, 정토를 일구다 2부**
민다나오에 핀 평화의 꽃



활동터소식

- 34 **해외, 국내 JTS 뉴스**
국내 / 인도 / 필리핀 /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 / 미얀마
- 41 **후원인의 소리**
- 42 **나눔회원소식**
새나눔회원 / 특별후원금 /
해외JTS 후원금 / 나눔저금통 현황

퍼낸날 2012. 9. 10 퍼낸이 법륜 만든이 박지나 퍼낸터 JTS 도운이 강선미, 양은지, 김옥희, 김혜원, 최지정, 김진진, 양창희, 최양희
디자인 · 제작 신명기획 02)273-6128

주 소 137-875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 전화 (02)587-8756 / 후원문의 (02)587-8995 팩스 (02)587-8998
E-mail jts@jts.or.kr 홈페이지 www.jts.or.kr

/ 여는 글

여름철 가장 무서운 건 무엇일까요? 요즘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공포감을 안겨주는 것은 바로 '물'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이번 여름 두 개의 태풍이 연이어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연례행사처럼 찾아온 비바람 소식에 나라 전체가 떨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재산과 인명피해가 막심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물 때문에 괴워하는 나라가 한둘이 아닙니다. 올 여름 필리핀은 '사올라'와 '하이쿠이'라는 두 개의 태풍을 잇달아 만났습니다. 수도 마닐라 대부분이 침수되었고, 수백 명의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북한은 더 심각합니다. 벌써 몇 년째 여름만 되면 수해 소식이 들려옵니다. 올해는 여름에 접어들기도 전인 6월부터 집중호우와 태풍에 수해를 입었습니다. 산에 나무가 없어 빗물과 흙이 마을로 고스란히 흘러들고 허약한 수로는 무너져 피해 규모는 더 커집니다. 식량 사정이 더욱 악화된 것 또한 큰일입니다.

물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지역이 있는 반면, 물이 부족해서 고통을 겪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최근 가뭄이 심해진 아프리카 케냐는 목초지가 줄자 케냐 사람들의 재산인 소가 많이 죽었고, 각 부족은 가축을 보충하기 위해 서로를 습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케냐의 사례는 물 부족이 사람들 사이에 전쟁과 죽음까지 불러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작 물이 필요한 곳에는 가뭄이 들고, 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는 또 태풍과 장마가 찾아옵니다. 자유롭게 흘러가야 할 물이 순환하지 못하고 멈추어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고여 있는 물을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막힌 물길은 터주어야 하고, 넘치는 물들은 퍼내야 합니다.

장마와 가뭄의 교호는 도움이 부족한 곳에는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몫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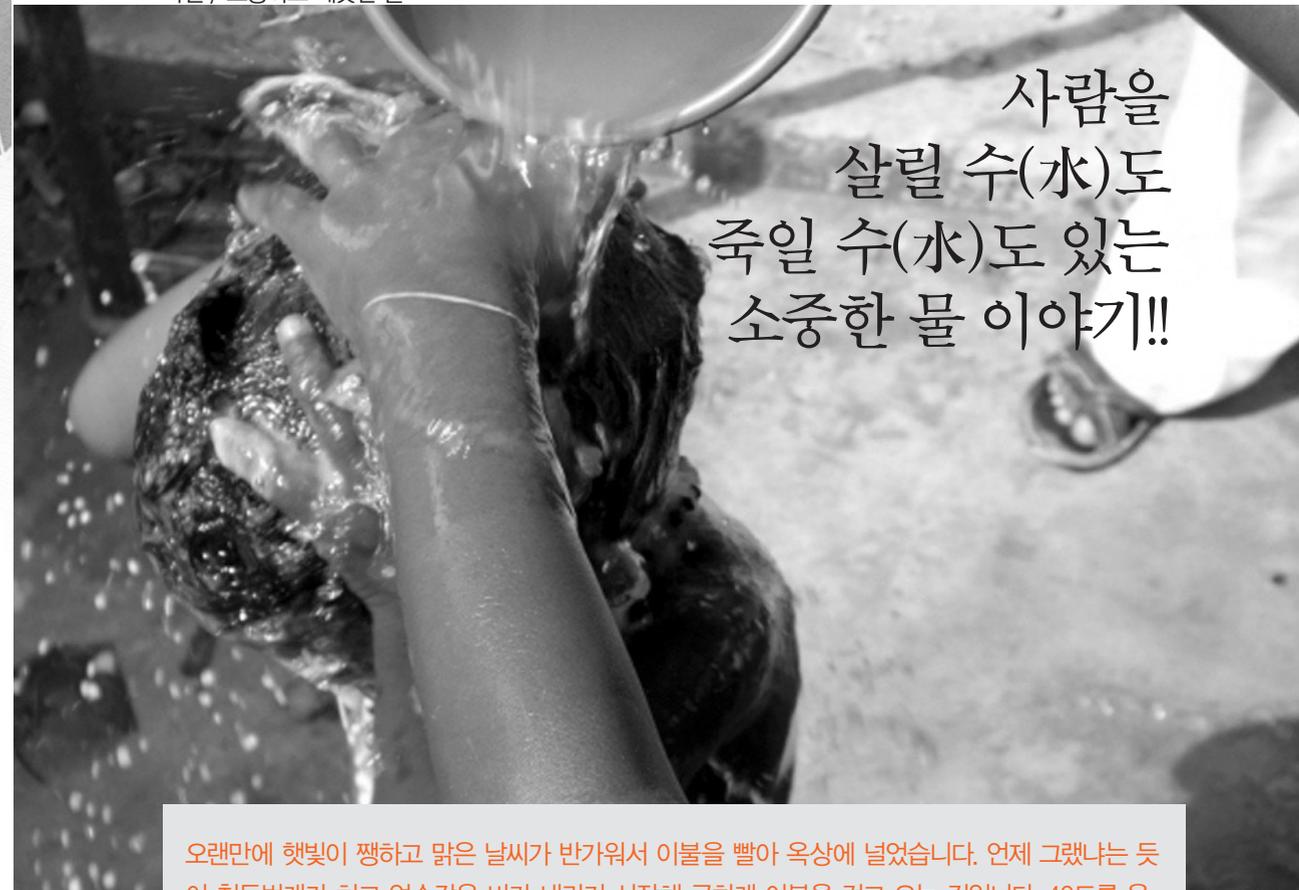
이번 호에서는 우기철을 맞은 해외 현장의 '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실천을 하신 착한결혼, 행복기부 인터뷰, 필리핀 활동가들의 인터뷰와 해외의 다양한 소식들도 준비해 보았습니다.

JTS 9,10월 소식지를 읽으시며, 즐거운 가을날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TS 소식지 편집부

김상훈, <극단의 가뭄, 최악의 홍수... 온난화로 붕괴되는 열대의 나라들>, 부산일보, 2012년 8월 28일자.

사진 / 소중한 깨끗한 물



사람을 살릴 수(水)도 죽일 수(水)도 있는 소중한 물 이야기!!

오랜만에 햇빛이 짙하고 맑은 날씨가 반가워서 이불을 빨아 옥상에 널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천둥번개가 치고 억수같은 비가 내리기 시작해 급하게 이불을 걷고 오는 길입니다. 4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가시고 우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을까요. 더위는 한 걸음 물러갔지만 아직도 30도를 넘나드는 고온에 비까지 더하니 습기가 가득한 '짹짹' 날씨가 계속되는 요즘입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JTS 인도 - 정수진 활동가

일주일 간 매일같이 비가 내리던 집중 우기가 지나고 이제 마을 사람들은 모내기를 하느라 노인, 아이 할 것 없이 새벽부터 논에 나가 일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물'이 일으킨 무서운 질병 시원하게 내린 비 덕분에 하루의 무더위는 잊을 수 있었지만, 때로는 이런 즐거움을 넘어 더 큰 위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마을의 위생상태와 주민들의 영양상태가 썩 좋지 않은 이곳 동게스와리에서는 우기철이 되면 더 많은 질병들이 발생합니다. 평소에도 마을 곳곳의 물웅덩이와 우물, 수로에는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는데, 우기에는 가축의 배설

“다행히도 콜레라는 넓게 퍼지지 않고 빨리 잦아들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아버지였고 남편이었던 소중한 이가 순식간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물까지 섞여 더욱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일은 더러운 물들이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고, 사람들은 이 물을 핸드펌프로 끌어올려 식수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과 아이들이 설사 병에 걸리기 일쑤이지요. 오염된 물을 생활용수로 쓰다 보니 피부의 작은 상처도 크게 끓아서 주먹만 한 종기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콜레라가 큰 문제입니다. 콜레라는 생명을 앗아가기 까지 합니다. 콜레라는 지속적인 마을개발과 위생교육, 그리고 지바카 병원 덕분에 동게스와리에서 거의 사라진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생상태가 좋지 않은 몇몇 마을에서 올해 다시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흔하지 않은 병이지만,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이곳에서는 설사와 탈수 증세를 일으켜 하루 이틀 만에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병이 바로 콜레라입니다. 우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콜레라 증세로 환자 몇 사람이 찾아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중 한 명은 병원에 후송된 직후 사망했습니다. 다행히도 콜레라는 넓게 퍼지지 않고 빨리 잦아들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아버지였고 남편이었던 소중한 이가 순식간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더 많은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마음으로 인도JTS 마을개발 스텝, 인턴들과 함께 마을 우물과 물길을 소독하기로 했습니다. 작년보다 비교적 늦어진 우기 탓에 마을에 물이 고여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함께렇게! 우리 마을은 우리가 청소해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은 인도JTS 상급학생과 스텝, 인턴, 한국인 활동가 모두가 함께 쉬람단을 하는 날입니다. 쉬람단 시간은 우리가 사용하는 학교 시설 곳곳을 청소하고 정비하는 신나는 시간입니다. 이번 쉬람단에는 특별히 우기철을 맞아 '마을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그디스푸르 마을에 사는 상급학생, 선생님, 스텝, 인턴들이 모여 자그디스푸르 마을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핸드펌프 주변으로 물이 흘러 내려가는 수로에 있는 쓰레기를 줍고, 사용하지 않는 우물 안과 우물 주변, 물웅덩이 곳곳에 소독약을 뿌렸습니다. 다들 악취와 더러움으로 하기 싫은 일이었지만 바로 우리가 그 일을 술선수범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마을은 넓고 쉬람단을 하는 인력은 몇 되지 않아서 언제쯤 끝날까 걱정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마을에 나가자 수자타아카데미에 다니는 초등학생, 유치원 꼬마들이 하나둘씩 거리로 나와 앞장서서 쓰레기를 줍고 청소가 필요한 곳을 안내해 준 덕분에 계획한 시간 내에 쉬람단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내 마을은 내가 치운다는 마음으로 마을 사람들과 힘을 모아 쓰레기를 치우고 청소를 해보았습니다. 제3세계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나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는 일. 지금 내 앞에 있는 쓰레기를 하나 줍는 일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배우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살아가던 동게스와리 사람들이,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마을을 깨끗이 하고 질병이 발생하는 조건을 개선해 나갑니다. 이 변화를 보며 우리는 희망을 배웁니다. 희망이 싹트는 것을 본 아이들이 자라면, 또 마을은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요.

동게스와리에 내릴 희망의 물줄기 자그디스푸르 마을을 시작으로 동게스와리 10여개 마을의 우물과 물웅덩이, 물이 흘러가는 수로에 소독약을 뿌리고 청소를 했습니다. 콜레라는 사라졌지만 웃음이 많은 동게스와리의 아이들에게 찾아오는 무서운 질병을 없애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비가 내립니다. 시원하게 내리는 빗줄기가 농사일로 무더위에 지친 마을사람들에게 시원한 휴식이 되기를, 온 가족이 힘을 모아 모내기를 한 모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데 희망의 물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수로를 따라 소독약을 뿌리는 수자타아카데미 선생님

마을의 쓰레기를 줍고 있는 수자타아카데미 학생

마을 청소를 하는 스텝 삼부

사진 / 필리핀정토회 이규초 거사님과 황정순 보살님



수해로 고통받는 필리핀에 JTS의 손길을

지난 7월말, 두 개의 태풍 '사올라'와 '하이쿠이'가 연속으로 필리핀을 강타했습니다. 그로인해 열흘 넘게 폭우가 쏟아졌고,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는 도시의 60%가 물에 잠기고 이재민만 백만 명이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JTS 필리핀 - 송지홍 활동가

필리핀 제이티에스는 2009년과 2011년에도 태풍 피해 지역에서 긴급 구호 활동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마닐라 근교 산마테오 시(San Mateo City)의 수재민들을 찾아갔습니다. 산마테오는 마닐라 동쪽 산악 지대 바로 아래에 위치했고 강의 수원지입니다. 강의 상류 지역은 범람 피해를 거의 입지 않지만, 이번 홍수가 워낙 큰 탓에 산마테오 시까지 덮친 것입니다.

도착해보니, 산마테오 시 6천 여 가구, 3만 여명의 사람들은 인근 학교나 농구 코트로 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재민들이 대피한 농구 코트는 말이 대피소지 사실 지붕만 덮여 있는 길과 다를 바 없어 거의 노숙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나마 학교 교실은 조금 나은 편이긴 하지만 역시 생활하기에는 불편해 보입니다. 바닥에 돗자리 하나 깔아 놓고 한 가족이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가족과의 공간을 분리해서 생활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그냥 이웃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 치안 문제도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피해는 주로 강변 가옥에 거주하는 빈민들에 집중되었습니다. 집이 파손된 경우는 거의 없지만 집이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게다가 한번 잠긴 물이 빠지는데 4~5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사이 또 비가 온다면 정말 큰일인 것입니다. 실제로 또 태풍이 온다는 예보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수재민들에게 지원된 물품은 쌀 3kg와 통조림 3개, 삶은 달걀 2개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JTS는 필리핀 정토회와 힘을 합쳐 긴급히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필리핀 정토회는 필리핀JTS 사업에 없어서는 안 되는 큰 힘입니다. 이원주 대표님은 필리핀 정토회와 필리핀JTS의 대표로서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며, 바쁘신 와중에도 한 달에 한 번씩 꼭 민다나오 섬에 방문하셔서 필리핀JTS 사업 진행 상황을 직접 챙기십니다. 노재국, 이규초 님도 항상 큰 힘이 되어주십니다. 필리핀 정토회는 매주 토요일마다 마닐라에 있는 한성당에서 무료 급식을 진행하는 등 평소에도 봉사 활

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홍수 피해 지원도 일상적인 봉사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지원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필리핀JTS와 논의하여 함께 지원한 것입니다.

일요일 오전에 정기 법회를 마친 후 법회 참석자들이 JTS와 함께 수재민 지원에 나섰습니다. 전날 구입해서 법당 창고에 쌓아 두었던 지원 물품을 트럭에 싣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땀 흘려 지원 물품을 트럭으로 옮기면서 모두가 즐거워합니다. 5살 꼬마 아이부터 예순이 훌쩍 넘으신 어르신까지 하나가 된 모습이 마치 대가족이 잔치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지원 물품이 적은 양이 아니었음에도 금방 마무리되었습니다. 역시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면 신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으로 어학연수 왔다가 학원 원장님 손에 이끌려 온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쇼핑몰에 나가는 길에 붙들려 와서는 열심히 물품 지원에 동참한 친구는 이런 소감을 남겼습니다. "여기 오지 않았으면 필리핀인들의 실제 삶을 모를 뻔 했어요. 도시의 화려한 곳들만 돌아다니게 되니까요. 이렇게 오기



사진 / 황폐화된 마을

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지원 물품 구입에 투입된 사람들은 모두 10명이었습니다. 질이 좋으면서도 가장 저렴한 물건을 찾기 위해 대형 매장 여러 곳을 뒤지며 발품을 팔았습니다. 특히 필리핀JTS 이원주 대표님께서서는 지원 물품 운송을 위해 사업장 트럭까지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구호 활동에 인건비나 기타 비용들이 들었다면, 한정된 예산으로 좋은 물건을 많이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JTS에서는 자원봉사와 기부를 통해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했습니다. 그 결과 이불 2채, 쌀 5kg, 라면 10개, 통조림 7개, 간장, 식초, 설탕, 커피 등까지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물건을 차량에서 내려놓는 순간 수재민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일 년에 한 번 홍수 피해가 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큰 비가 올 때마다 반복되는 일에 수재민들은 이제 체념한 듯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난이 일상이 되어버렸는지 고생스럽지도 않고 오히려 이런 상황을 즐기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매년 되풀이되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

한다면 더욱 고통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부에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체념과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수재민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바닥에 쌓인 진흙을 청소하고 예전과 같은 생활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태풍이 강타하면 다시 집을 싸서 대피소로 돌아갈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필리핀 사람들은 이미 매년 반복되는 홍수 피해를 정신적으로 극복해낸 것 같습니다.

JTS는 이번 홍수 피해를 조사하며 마닐라 하천 및 제방 건설 방안에 대한 연구를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이미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는 진행될 만큼 진행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문제는 실행인데요. 생각나는 신문 사설 한 대목이 있습니다. “마닐라 홍수 피해는 인재이다. 통합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하천 및 제방 정비가 지역 정부 간 소통 부재로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필리핀 정부의 몫일 것입니다. 신이 돕기를 기다리지만 해서는 안 될 텐데 말입니다.



사진 / 조그만 손도 도움에



마을답사시 물러든 아이들

미얀마에 행복의 씨앗을!

마을 답사를 할 때면 늘 학교 방문을 잊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교육 여건과 더불어 건강 상태도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하니까요. 아이들의 티없는 웃음을 마주하면 건강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해맑고 행복한 아이들의 웃음이 저한테는 참 골칫거리입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JTS 미얀마 - 김성현 활동가



마을현황파악을 하고 있는 필자

할아버지, 할머니의 눈웃음을 그대로 이어받은 데다가 아버지, 어머니의 미소까지 전수받아 도저히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수 없게 만들거든요. 하지만 JTS활동가다운 초인적인 정신력과 프로의 자세로 이런 마약같은 아이들의 미소에서 겨우 눈을 땡니다. 아이들을 살펴보니 못 먹어서 뼈가 앙상하거나 굵어서 배가 볼록 나오지는 않았습니니다. 참 다행입니다.

미얀마는 한때 아시아 최대 쌀 수출국이었을만큼 농업대국이고, 곡식뿐 아니라 과일 등 먹을 것도 풍족합니다. 미얀마의 경제발전 정도에 비해 기아가 심각하지 않은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마을 어른들도 아이들의 건강 상태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아이들의 '영양' 상태에서 보자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건강을 '영양'과 더불어 '위생'과 '질병'의 측면에서 보자면 얘기는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인이 바로 '물'입니다.

현재 미얀마 정부와 언론은 중금속 중독을 우려하여 지하수 대신 정수된 물을 마실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에 따라 공장과 가정으로부터 나오는 각종 오·폐수와 쓰레기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화시설이나 폐기시설은 거의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각종 쓰레기들이 마을 공터에 산

을 이루고, 특히 우기 때는 검은 물줄기가 쓰레기 산 주위로 사방팔방 뿔어 나갑니다. 이러한 오염물질들이 결국 땅에 스며들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단순한 지식조차 시골 주민들에게는 신기한 소리로 들립니다. 빗물 또한 공해로 오염되었지만 시골 주민들은 지금까지 잘 마셔왔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마을에 간호사나 약사라도 있어 식수오염의 위험을 인식한 주민들이라 하더라도 뽕족한 대안은 없습니다. 물가상승에 따라 물값도 올라 주민들의 소득으로는 밥 짓는 물조차 마음껏 사기 힘든 형편입니다. 성능에 의심이 가는 노후한 정수기를 어디서 가져와서는 주민들에게 정수한 물이라며 싼값에 파는 곳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지만 이마저도 도시의 마을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시골주민들의 건강, 특히 아이들의 건강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얀마는 전반적으로 식수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미얀마의 중부지역은 심각한 가뭄으로 물이 부족하고, 서부와 남부지역은 바다와 접해 있어 염분 때문에 농수와 식수의 공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도 지하에 암반이 있거나 굴삭 장비와 기술의 노후 등으로 우물을 새로 파기가 힘이 듭니다. 한 예로 깔라콩이라는 마을은 초등학교의 우물이 말라 버리면서 학교 주변에 6차례에 걸쳐 새 우물을 파려고 시도했으나 결국 전부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가진 재래식 장비로는 기껏해야 땅을 채 10m도 파지 못합니다. 설사 물이 나온다고 해도 수심이 너무 얕아 흙탕물이 나오거나 금방 말라 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마시지도 못하는 물에 모기가 끼어서 마을의 골칫거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임시로 학교 옆 가정집의 우물을 대신 사용하고 있는데 100명의 아이들이 가정집의 핸드펌프 우물로 식수를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이들에게 신식 장비와 집수 및 정수시설을 지원하여 좀 더



마을 답사시 아이들

깊은 수심의 맑은 물을 충분히 그리고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마을은 100가구 중에 오직 3가구만 화장실, 그것도 겨우 재래식 화장실을 갖고 있습니다. 바퀴 말하면 나머지 집들은 논과 밭에다, 그리고 집 바로 뒤 터에다 일을 본다는 것입니다. 닭과 돼지, 소의 오물은 큰길과 집 앞에도 낭자합니다. 우기에 비가 많이 오고 길에 물이 차면 아이들의 통학로는 이러한 병균 가득한 오수로 물바다가 됩니다. 아이들은 무릎까지 잠기는 이 물을 헤치고 집에 오가고 있으며 진흙이 묻은 손과 발을 이 물에 씻기도 합니다. 화장실 지원과 위생교육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 턱 고고 앉아서 찡그린 얼굴로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JTS는 오랜 조사와 고민 끝에 식수지원사업을 시작으로 미얀마에 행복의 씨앗을 뿌리기로 했습니다. 식수지원을 토대로 마을주민들의 단합과 마을개발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으면 그 다음부터는 JTS의 도움 없이도 주민들이 열매를 따고,



마을 주민들과의 미팅

씨앗을 거둬서 다시 땅에 심을 수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얀마JTS는 농사대국 미얀마에 행복의 씨앗을 뿌리고 심고 키우는 농사를 가르치고자 이제 막 걸음마를 떴습니다. 지금 미얀마JTS 활동가들의 마음은 미술시간에 밀그림을 그리면서 설레는 아이들의 마음이기도 하고,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고 간판을 새로 올리는 사장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맑고 깨끗한 물을 마음껏 마시는 아이들의 환한 웃음을 꿈꾸어 봅니다.

*아바 까바르는 'How are you?'라는 뜻의 인도네시아어입니다.

우바마을 관개수로공사 품앗이



라마단도 끝났으니 이젠 좀 먹으면서 하자!

오늘도 언제나처럼 현장점검을 가면 일하고 계신 마을 주민들과 만납니다. 저희 JTS 인도네시아 활동가들의 하루 업무의 시작은 현장에서 주민들과 반갑게 아침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인도네시아 아감군 내에 있는 루북바송면과 띠라땅까망면 그리고 띠꾸면에서 유치원과 마을진료소, 관개수로공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적정한 시점에 농기계 지원도 할 예정입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JTS 인도네시아 - 임희성 활동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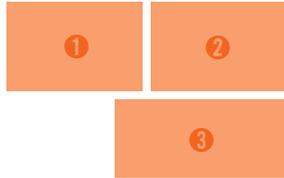


유치원 공사와 관개수로는 작년에 해 본 경험이 있어 별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올해 처음인 마을 진료소 건축은 공간 구성에 있어 의료관계자에게 많은 자문을 얻어야 했습니다. 진료소는 마을 주민들의 1차 진료 공간으로서의 기능과 함께 24시간 의료 인력이 상주할 수 있게끔 생활공간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마을 진료소가 완공된다면 무엇보다도 멀리 이동하기 힘든 임산부들이나 영유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유치원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교실 3칸 규모로 지을 예정입니다. 3칸이면 몇 년 안으로 늘 어날 원생들 숫자를 감안해도 충분한 공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농기계는 농민들이 동네에서 수리할 수 있고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부품 조달이 되는 기계를 중심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어제(8월19일)로 한 달 간의 라마단(이슬람 聖月)도 끝이 났습니다. 라마단은 '더운 달'이라는 뜻의 이슬람 명절로, 이 기간 동안 이슬람 교인들은 일몰까지 금식하며 사원에서 밤새 기도합니다. 이곳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교가 국교이니, 라마단 기간 동안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저희 활동가들은 비록 이슬람 교인은 아니지만, 이곳 문화를 존중하며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한다는 뜻에서 라마단 관습에 따라보기로 했습니다. 라마단이 끝나면 연이어 르바란(인도네시아 명절)이 시작됩니다. 1주일 간의 르바란까지 끝나야 드디어 그동안 잠시 지지부진했던 공사가 다시 기지개를 켭니다. 한 달 간의 라마단을 처음으로 경험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며 버려준 김선욱 활동가와 오성근 활동가에게도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희 JTS 인도네시아는 사업을 크게 두 가지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JTS 인도네시아의 법적 지위권을 확보하는 것이고, 둘째는 사업 내용을 보다 다양화하는 것입니다. 법적 지위권 확보에 관한 업무는 이미 올해부터 김선욱 활동가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저희의 법적 지위는 2개월짜리 사회·문화 비자로 초청인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청 업무나 금융 업무는 말할 것도 없고 이사를 하거나 인터넷을 설치하는 등 일상의 사소한 부분들까지도 현지 보증인의 허락을 필요로 하여 여러모로 불편했습니다. 올해 안으로 야야산(법인)이 설립되어 내년에 비자 문제를 비롯한 각종 법적인 지위권이 확보되면, 현지인들을 거치지 않고 보



- ① 꼬뜨말린망마을 보건소관련 주민회의
- ② 심뽕엀뽕마을 보건소 기동세우기 작업중
- ③ 뽕뽕뽕뽕마을 유치원 벽체공사중



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목표사업 내용의 다양화는 오성근 활동가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마을 지원에 적정 기술을 활용하는 것과, 조합을 설립하는 것 두 가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적정기술이란 제3세계의 지역적 조건에 맞는,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친환경 기술을 말합니다. 저희 계획은 아감군 까망무딕면(KEC, KAMANG MUDIK, KAB. AGAM, WEST SUMATRA)에 빗물을 이용해서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까망무딕면은 해발 900m로 지대가 높아 지하수를 팔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식수 공급차가 오면 이를 사먹는 실정입니다. 가뭄이나 가난한 살림에 이 식수값은 매우 큰 부담이지요. 생활용수 또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동네 사원에서 받아놓으면 동네 사람들이 매일 바구니로 떠가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마저도 산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뿌린 농약성분이 섞여져 들어와 위생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조합 설립은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하려 합니다. 지금 이 지역의 큰 문제 중의 하나는 돈

벌이 수단이 부족하다는 것 입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현금을 얻기 위해서 팜(palm, 기름야자) 열매나 모래, 돌 등을 채취해 살아가는데, 일이 불안정해 항상 생활이 곤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성 주민을 중심으로 한 재봉조합과 남성 주민을 중심으로 한 양어조합 설립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많은 조사 작업이 선행되어야겠지만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마을 살림살이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인도네시아서는 남자 세 활동가가 머리를 맞대어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실행에 옮기면서 생활해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더디게, 빠르게 그럴지만 꾸준히 인도네시아에서 세 남자의 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활동가 박병수, 박성신씨



비 갠 뒤 무지개를 기다리며 -캄보디아JTS에서

비가 내릴 때면 떠오르는 추억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쫘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시절 저는 비 오는 걸 싫어했습니다. 특히 장마 기간에 높은 습도로 인한 축축함도 싫었고, 비가 오면 밖에 나가 놀지도 못하니 얼른 비가 그치기만을 바라곤 했었죠.

함께하고 글쓴이 JTS 캄보디아 - 박병수 활동가

호수하늘에 먹구름 잔뜩



비가 많이 내리던 하교 길이었습니다. 무던히 내리는 비에 차마 학교 밖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 녀석이 저를 떠밀어 몽땅 비를 맞게 되었어요. 해맑게 웃고 있던 그 친구가 어찌나 예쁘던지……, 빗물 한 바가지 제대로 돌려주었죠. 그렇게 시작된 물장난은 옆에 있던 친구들 모두 가세해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결국 선생님의 출동으로 한 소리 듣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정말 즐거운 사건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날 이후로 비가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무슨 비 타령이냐구요? 캄보디아JTS가 활동하는 이곳 라타나끼리 주에도 우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는 보통 5월에서 11월까지 우기라고 하는데요, 올해 5월에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다가 6월에 되어서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7·8월이

가까워지면서 이게 우기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밤 사이 비가 어찌나 무섭게 내리던지, 빗소리 때문에 자다가 깰 정도랍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면, 학교 건축을 하는 JTS의 활동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지요? 우선 마을을 찾아가는 길이 장난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곳은 라타나끼리 주의 타벵 지역 3개 마을인데요, 가는 길이 오르락내리락 구불구불하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어떤 구간은 '2초 롤러코스터' 기분을 낼 수 있을 정도인데요, 거기에 비가 내리면 진흙 밟으로 변하기 때문에 웬만한 차가 아니고서는 지나갈 생각도 못합니다. 그래서 마을을 다니다 보면 중간 중간 낙오한 차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하루건 이틀이건 땅이 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간다고 하네요.

한창공사중인툰퐁렌툰마을



그리고 비가 내리는 시기는 마을 주민들도 무척 바빠집니다. 주로 농사를 짓고 사는 주민들은 무엇이든지 무럭무럭 자라는 우기에는 농작물을 심고 가꾸느라 농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거든요. 또 건기가 시작될 즈음에야 추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기에는 경제적인 형편도 좋지 않다고 하네요. JTS의 학교 건축에는 마을 주민들도 자원 봉사로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 그룹을 만들어 돌아가면서 공사에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건기 때보다는 주민 참여가 저조하겠죠? ^^;

또 공사하는 도중에 비가 내리면 손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지붕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라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공사를 진행하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죠.

이런 문제들말고도 비가 내리면 고민해야 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재를 현장에 운송할 때 도로 사정으로 생기는 어려움, 불어난 강물과 거센 물살로 강을 건널 때의 안전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매일 공사 현장에 나와 손수 학교를 지어나가는 마을 주민들과 JTS의 활동을 도와주는 현지인 봉사자들 그리고 JTS활동가들을 보면, 우리 모두가 함께 아이들을 위해 심은 '희망'이라는 씨앗이 이 비를 머금고 싱싱한 싹을 틔울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듭니다. 우기가 끝나면, 비 갠 뒤 공사 현장에 나타나는 이 무지개를 우리 모두 다시 볼 수 있겠지요?



* JTS 국제구호활동가 교육을 소개합니다!

지난 7월 21일 JTS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선린인터넷고등학교 학생들과 특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바로 JTS에서 진행하는 국제구호활동가 교육 시간이었는데, 총 2회로 기획된 수업 중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총 3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이 수업에서는 JTS의 활동 소개와 겸해 제3세계의 아픈 현실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간접적으로 체험해보는 활동인 인생 게임도 해보았습니다. 인생 게임은 자신이 태어나는 나라와 인종, 재산 정도나 전쟁 여부 등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을 주사위로 정하는 게임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래머가 꿈인 학생이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인도의 빈민 지역에 태어난다면, 어디에서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겠죠? 활동 후 나누기에서 선린고 학생들에게서도 역시 자신이 현재 처한 조건에 감사한다거나, 제3세계 사람들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 공감할 수 있었다는 내용의 발표를 들 수 있었습니다.

JTS 봉사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JTS 및 여러 NGO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들이 쏟아져, 국제구호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질의응답 도중 JTS 봉사자들이 단체로부터 월급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자원 봉사만으로 활동한다는 것을 알고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남을 돕는 일이 결국에는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는 점을 이해하면서, 봉사 활동에 대한 생각을 조금은 달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선린고 학생들은 이전부터 JTS 거리 모금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어서인지, 봉사 활동에 대한 생각이나 마음가짐이 이미 남달랐습니다. 직접 현지에 가서 활동하고 싶다는



학생도 있었는데, 아쉽지만 아직 미성년자이니 성인이 되면 꼭 JTS로 와서 함께 하자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방학을 이용해 국내 활동을 하고 대학생 봉사자와의 대화를 통해, 국제구호 활동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JTS 국제구호활동가 교육은 이름 그대로 청소년들을 예비 국제구호활동가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제구호활동가라니, 너무 거창한 것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국제구호활동은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도 언제나 실천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내가 지구촌이라는 큰 공동체의 일원임을 깨닫는 순간부터 말이죠. 최근 북한의 큰물피해, 필리핀의 홍수 등 크나큰 재난이 남의 일로 느껴지지 않을 때, 안타까운 마음에 무언가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을 때, 우리는 이미 국제구호활동가인 것입니다.

이처럼 JTS 국제구호활동가 교육은 추상적인 봉사나 나눔 교육에서 나아가, 청소년들과 함께 자신의 삶 속에서 언제나 지구촌 이웃을 생각하며 일상적으로 이웃에 대한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모색하는 교육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보다 넓은 시야로 세계를 바라보며 세계에 대한 주인 의식과 책임 의식을 가진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각 학교의 수요와 일정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진행해 왔는데, 앞으로는 정규 커리큘럼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제구호활동가 양성이 목표이니만큼 교육 과정도 기본·심화·전문 과정으로 세분화하고, 각 과정별로 수료증을 발급합니다. 각 과정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교육 내용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제3세계 이슈를 탐구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실천하는 등 여러 가지 재미있는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JTS는 앞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과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려 합니다. 교실 안에 갇힌 지식 교육을 넘어 청소년들과 함께 의미 있는 경험을 만들어가는 데 관심 있으신 여러 선생님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마을을 방문한 필자 송지홍



해외 파견자 인터뷰 - 필리핀 편

베테랑 활동가 송지홍의 이야기

Q. 필리핀에서 활동을 시작한 때와 계기가 궁금해요.
제가 2011년 3월 13일에 파견되었으니, 필리핀에서 활동을 시작한지도 이제 1년하고 5개월이 넘었습니다. 저는 JTS의 이념 중에서도 '아이들은 제때 배워야 함

니다', 즉 문맹 퇴치 사업을 해보고 싶어서 필리핀 사업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를 짓고, 학교가 잘 운영되도록 보살펴 주고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극복해 나가는 일이 참 매력적이었습니다. 뭐 실제 와서 해 보니 쉽지는 않네요.

Q. 그간 활동하면서 느꼈던 점은 무엇인가요?
이곳 필리핀에서의 활동은 강렬함보다는 잔잔함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원한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때, 지원한 교복과 가방을 메

고 아이들이 학교 주위를 뛰어 다니는 것을 보면 마음이 참 기쁩니다. 제 어린 시절 생각도 나고 부모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상상도 해 보게 되구요. 필리핀 아이들 덕에 제 삶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교실이 없어서 큰 나무 아래 책상을 놓고 수업하는 선생님이나, 아이들이 동화책을 읽을 수 있도록 대나무로 도서관을 만들어 내는 부모님들을 보고 있으면 감탄이 나옵니다. 이렇게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더욱 신명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참 재미나고 보람칩니다.

함께 심어 보자고 나무 묘목을 주면 즐겁게 열심히 심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맹 퇴치 사업의 목적은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아이들의 마음에 활력을 주고 생동감을 주는 일이겠다." 그래서 2012년부터는 사업의 명칭도 교육 지원 사업에서 '다니고 싶은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학생들이 재미나게 공부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돕고 싶은데 재능이 좀 부족합니다. 이런 일에 관심 있고 재능 있는 분들 어디 없나요?

Q. 활동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사실 파견되기 전에는 별의별 일을 다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혼자 온갖 상상을 다했죠. 그런데 현지에 와서 실제로 일을 하다 보니 필리핀의 역사, 사람들의 문화, 사람들의 정서를 이해하기 전에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를 지을 때 건축 자재를 주문하고 현장에 가보면 자재가 도착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늦는지 설명하는 연락도 없습니다. 사전에 계획한 저희 일정

이 종잇조각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그 뿐인가요? 문구류, 교과서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에게 말을 보내달라고 하면, 저희가 마을 방문을 하고 돌아갈 때 짬 되어야 겨우 말이 물건을 가지러 갑니다. 저희는 물건을 나눠주면서 이런 저런 행사도 해야 하는데 행사 자체가 취소되어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화도 내고 따지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내가 일하고 있는 곳이 필리핀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 필리핀 사람들과 일하고 있으면서 일하는 방식은 한국식으로 하니 뒤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일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인식하고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 화내고 따질 대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으니 우리가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필리핀 사람들에게 제안하고 그 사람들이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필리핀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일을 해 나가는 방식이나 순서에 대해서 생각을 묻고 같이 고민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저도 필리핀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발 상황 자체도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함께 일하는 한국 사람들, 즉 동료 활동가들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남아 있는 아주 큰 과제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 듯하네요. :)

바삭에서 나온 뒤 빨갈게 익은 모습



새내기 활동가 이재곤의 이야기 -바삭(BASAG) 마을 방문기

Q. 바삭(BASAG) 마을은 어떤 곳이며 첫 인상은 어땠나요?

“손 씻는 데가 어디니?” 이 아이, 저 아이 붙잡고 영어로 물어보면 아이들은 수줍어서 도망가기 바쁘니다. 외지인인 저를 보고 그저 웃기만 할 뿐. 고학년 아이들은 그래도 영어를 조금 알아듣는다는데, 제가 비사얀어(필리핀 민다나오섬 언어)로 말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얼굴 씻는 시늉을 하니 아이들 역시 ‘저~~~~기 있다’는 시늉만 하고 제대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이 학교 선생님께서 물어보니 학교에서 물을 구하려면 1km는 가야 한다고 하네요.

바삭(BASAG) 마을은 주민 대부분이 원주민이고 총 가구 수가 70여 가구에 300명 정도가 사는 마을입니다.

‘바삭’이라는 마을 이름을 들었을 때 한국어 ‘바삭’이 생각나 웃었습니다. 저는 더울 때 ‘바삭바삭 탄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쨍쨍한 햇볕 아래서 피부가 타다 못해 따갑고 목도 매우 마를 때, 내 몸이 아주 바삭바삭 타는 그 느낌. 그런데 실제로 이곳은 그 표현이 너무도 딱 맞는 곳이어서, 마을 이름이 왜 ‘바삭’인지, 필리핀 어로는 그 뜻이 뭔지 궁금하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민다나오 마을 대부분이 벌목을 하도 많이 해서 나무가 거의 없긴 하지만, 이 마을 역시 방문했을 당시를 생각해 보면 따가운 햇볕과 행한 들판 위에 학교 하나만 덩그러니 있는 이미지만 떠오를 정도이니까요.

마을에 도착했을때 마을 주민께서 멀리서 오느라 수고한 외지인에게 코코넛을 주셨어요. 시내에서는 먹어봤자 맹송한 맛에 한 모금도 먹기 힘들지만, 그 순간만큼은 생존을 위해 마시는 사람처럼 한 통을 원샷해 버렸습니다. 와, 그렇게 달달한 코코넛은 처음이었어요. 목이 말라서였을까요, 마을 사람들의 마음 덕분이었을까요? ‘다른 마을과 종이 다른 코코넛인가?’라고 물어볼 정도로 맛이 남달랐습니다.

Q. 바삭 마을에 방문한 목적과 결과가 궁금해요.

이번에 바삭 마을에 방문한 목적은, 올해 3월에 완공한 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삭 마을의 인근 농장이 계속 커지고 있어 마을 주민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알고 보니 블루안에 있던 아이도, 파곰퐁에 있던 아이도 어느새 바삭 마을로 이사해서 이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유치원 수업이 한창이었는데, 교실이 모자라 학교 오른쪽 벽에 지붕만 설치하고 책걸상 몇 개를 놓고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교실이 부족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워터탱크’(water tank)가 아직 설치되지 않아 아이들이 먹을 물은 물론 학교에서 생활하는 교사들의 생활용수마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덜컥 물탱크를 지원을 해준다고 약속할 수도, 학교

증축을 약속할 수도 없습니다. 언제나 조금 더 지켜본 뒤 신중하게 증축을 결정해야 하니까요.

Q. 바삭 마을에 다녀오신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마을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사하라 사막 여정길’이었습니다. 머리 위로 강렬한 햇살이 쏟아지고 발 아래로는 뜨거운 기운이 올라와서 돌아가는 길이 여간 만만치 않습니다. 불과 10분 전에 쉬고도 길가에 작은 나무 그늘이라도 있으면 방앗간 만난 참새마냥 나무그늘을 ‘부여잡고’ 쉬어갑니다. 그냥 힘들어서 쉬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 쉬는 것입니다. 이렇게 뜨겁지만 한 길에 무자비하게도 바람 한 점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런 길을 1시간 30분이나 걸어야 겨우 도착하지요. 한국에서 국토대장정을 한 적이 있어서 걷는 것쯤이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 지난 번 학교 준공식 방문객들이 돌아오는 길에 뻘었다는 이야기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를 비롯한 활동가들이 힘겨워하자 우리의 제시 아저씨가 ‘베리 콜드, 베리 콜드(Very cold)’를 외치며 격려해주었어요. 제시 아저씨는 민다나오 다물록 시(市)의 마을 개발 코디네이터로, 가이드 겸 통역을 해주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도 덩달아 주문을 걸 듯 ‘베리 콜드! 베리 콜드!’를 외치며 제시 아저씨 뒤통무리를 바빠 쫓았죠. 겨우 도착해 한숨 돌리고 있으려니 같이 간 필리핀 실무자가 제 얼굴이 완전 새빨갈다며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찍고 나서 보니까 실무자도 얼굴이 빨갈게 잘 익어 있었습니다. 왜 제시 아저씨가 항상 주황색 보자기로 얼굴을 감싸고 다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본부에 마을 방문을 마쳤다고 전화를 하니 “살아 돌아왔네.”라는 말이 돌아왔어요.)

Q. 새내기 활동가로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필리핀으로 오기 전 해외 활동가 교육을 받을 때 배운 것이 있습니다. 마을 지원 할 때 유의할 점 중 하나가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육을 받을

때는 저 역시 그에 공감했었고, 무조건적으로 퍼주기만 하는 지원은 오히려 수혜자들을 의존적으로 만드는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마을을 다녀와 보니 상황이 이렇게 시급한데 왜 빨리 물탱크를 지원하지 않는지, 학교 증축을 하지 않는지 답답해했습니다. 그렇게 조금한 마음에 답답해하다가도, 파견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현지 사정을 정확히 이해하기 힘들다는 교육 내용이 떠올라 답답한 마음을 추스려 봅니다.



마을주민 회의

쉬는 중에도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 속에 한 발 한 발 옮기던 느낌이 생생합니다. 에어컨 버튼 하나만 누르면 차가운 바람이 나오고 수도꼭지만 돌리면 깨끗한 물이 팔팔 쏟아져 나오는 한국에 있다가, 모든 것이 쉽지 않은 이곳 민다나오로 온 지도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아무리 물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공익 광고를 봐도 아무 느낌도 없었는데, 바삭 마을에 다녀오니 그간 제가 얼마나 풍족하게 살고 있었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더위는 약과라고 합니다. 이제 곧 필리핀에는 건기가 옵니다. 그때가 오면 바삭 마을이 더욱 바삭바삭 탈 텐데 조금 걱정이 됩니다.

JTS와 함께하는 착한 결혼 아름다운 나눔



CONGRATULATION & THANKS FOR 조대진 & 김순정

조대진 & 김순정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 분의 행복한 결혼으로 인도 수자타아카데미의
학생들이 밥을 먹고,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조대진 & 김순정님 두 분의 이름으로 축의금이 기부되었습니다.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JTS와 함께 하는 '착한 결혼, 행복 기부'

글 편집부 | JTS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 출발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앞으로 같은 길을 함께 걸겠다고 선언합니다. 결혼식은 실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시작 결혼, 좀 더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여기 '특별한 결혼, 착한 결혼'으로 의미 있는 결혼식을 만든 부부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7월 7일에 결혼한 조대진·김순정 부부입니다. '착한 결혼'은 천편일률적인 결혼식을 넘어 결혼에 나눔을 접목하려는 시도입니다. 조대진·김순정 부부는 축의금의 일부를 인도 수자타 아카데미에 기부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는 행복한 날, 아름다운 기부를 실천해 주신 조대진 님을 만나보았습니다.

JTS : 축의금이 기부된 이후에 JTS 기부메일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메일을 받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조대진 님 (이하 조) : 기부메일을 받고 정말 뿌듯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물질적으로나마 도울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처음에 이원경 씨께서 축의금 대신에 기부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뜻에 100% 동의했어요. 굉장히 참신한 생각이라고 느꼈고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부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직접 가서 봉사를 할 수 있는 일에도 참여할 계획이에요.

JTS : 조대진·김순정 님처럼 이른바 '착한 결혼'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 : 물론 항상 나눔을 실천해야겠지만, 결혼 같은 큰 행사를 계기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착한 결혼'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통해 나눔을 실천했으면 합니다.

JTS : 평소 봉사활동이나 기부를 하시는지, 한다면 어떤 것을 하시는지 알고 싶어요.

조 : 인도에 있을 때 한인교회와 한인회 활동을 했어요. 담요 나눠주기 운동, 고아원 방문, 기부금 전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JTS : 인도에 계신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인도의 현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조 : 인도 길거리에는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상류층보다 더 잘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긴 해요. 하지만 그만큼 빈부격차도 너무 심한 나라입니다. '릭샤'라고 불리는 삼륜 자동차를 탄 적이 있어요.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길거리에 노숙하고 있는 사람들이 남녀노소 불구하고 자동차 곁으로 와서 구걸을 하더라구요.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돕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JTS : 기부금을 받을 수자타 아카데미 학생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조 : 제가 인도에서 몇 년 간 살았어요. 그래서 인도에 대한 애착이 많습니다. 저희 커플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처럼 인도 수자타 아카데미 학생들도 꿈과 희망을 잃지 말고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뜻 깊은 나눔을 통해 결혼을 시작한 이 부부에게 앞으로 좋은 일만 일어나리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행복한 기부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 또 있습니다. 이원경 JTS 후원자님은 결혼하게 된 조대진·김순정 님에게 직접 축의금을 전달하는 JTS에 기부하면 어떻게 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했습니다. 부부는 분명히 기뻐하리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축의금 기부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수자타 아카데미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착한 결혼'의 기획자가 바로 이원경 님인 셈입니다. 이번에는 이원경 님을 만나 결혼과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JTS : JTS 후원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이원경 님(이하 이) : 기억에 남는 시점이 세 가지 정도 있어요. 먼저 2010년 8월에 법륜스님과 함께 하는 역사 기행을 다녀왔거든요. 그 때 두만강 건너편에 있는 북한을 직접 봤어요. 그 다음에는 인천항에서 있었던 선적식에 갔습니다. 구호물자가 실제로 북한으로 가는 것을 본 게 기억에 많이 남았죠. 그리고 2011년 1월에는 인도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그 때 수자타 아카데미도 방문했고요. 사실 10년 전 쯤에 인도에 여행간 적도 있고 일 때문에 3~4개월 체류해 보기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불가촉천민이라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참 어려웠어요. 안쓰러운 마음은 있었는데 어떻게 도와야 할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JTS를 통해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되었지요. 이 세 가지 계기들이 모여 후원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JTS : 정기후원 외에도 여러 가지 나눔 활동을 하고 계시지요. 이번에는 결혼식을 맞이한 신랑·신부에게 직접 축의금을 전달하는 대신 JTS에 기부하셨다고 들었어요.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해 내셨나요?

이 : 저는 주변에 친한 사람들이 결혼하는 경우 돈보다는 특별한 선물을 통해서 축하를 전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딱히 생각나는 선물이 없었어요. 사실 평소 주던 선물도 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물건은 아니거든요. 두고 보면 기쁨과 추억이 되기는 하지만 필요 없는 것을 쌓아 두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러다보니 축하를 표현할 방법으로 무엇이 좋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검색도 해 보았죠. 찾아보니 신랑신부가 스스로 기부하는 경우는 많더라고요. 받은 축의금을 기부하겠다고 말하는 연예인들도 있었어요.

JTS : 전례가 없는 일이네요.

이 :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 아이디어를 한번 그려 봤어요. 제가 내는 축의금은 JTS로 가고, JTS는 대신 결혼하는 신랑·신부에게 감사 메일을 보냈으면 좋겠고, 그 메일은 이리이러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만들었어요. 만든 걸 갖고 JTS에 문의를 한 거죠. 사실 처음에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침 할 수 있겠다는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원하던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었죠.

JTS : 축의금을 인도 수자타 아카데미 학생들에게 기부하기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 : 원래 저는 북한 후원을 많이 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북한 아이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은 많이 해도, 북한을 돕는 행동이 실제로 그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거라고 믿지는 않거든요. 축의금 기부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려면 북한보다는 인도를 돕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조대진·김순정님이 인도에서 만나서 결혼까지 간 커플이에요. 인도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잘 알테고요. 인도 수자타 아카데미 학생들에게 기부하면 서로 더 공감이 될 것 같았죠.

JTS : JTS 후원자로서 JTS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 :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JTS에 후원하라고 권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JTS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 JTS만의 장점을 알려주고 싶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모두 무급으로 근무하시잖아요. 다른 구호단체들은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높은 반면에요. 제가 주변에 종종 하는 말이 있는데, 다른 단체들은 만 원을 기부하면 이삼천 원만 도움에 쓰이는데 JTS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모두들 기부할 때는 자신이 내는 돈이 도움 받아야 할 대상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라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개가 홈페이지 등에 잘 나타나 있었으면 합니다. 다른 하나는, 돈이 사용된 내역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더 자세하

게 기록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믿을 만하구나.'라는 점을 JTS가 잘 보여줬으면 해요.

특별한 날의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것을 조대진·김순정 님, 그리고 이원경 님이 함께한 '착한 결혼'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JTS에서도 '행복 기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일, 새 생명의 탄생 등 기억하고 싶은 순간을 나눔과 함께 하자는 취지에서입니다. 더욱 많은 분들이 행복 기부에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착한 결혼, 행복기부자 이원경님

우리 생애 반짝이는 특별한 순간.

오래 간직하고픈 소중한
행복한 날들이 있습니다. 나의 기쁨을 소외되고
아픈 이웃과 함께 나누는 '행복 기부'

좋은 날을 더욱 의미 있고 뜻 깊은 날로 만들어 보세요.
당신의 행복으로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 집니다.

※ 행복기부를 하신 분 중 원하시는 분들께는
<JTS로고와 문구>, <기념액자>를 보내드립니다.

행복기부



◆ 결혼 기념 기부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날.
행복한 삶의 시작을 나눔과 함께 하세요.
[나눔 방법] 축의금 기부,
리마인드 웨딩 기념 기부 등

◆ 첫 탄생 기념 기부

우리 아이를 처음 만나는 순간,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손을 뻗어
꿈을 움켜쥐는 순간, 처음은 언제나 설레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첫 출발을 나눔으로 응원해 보세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시작입니다.
[나눔 방법] 출산일 기념 기부, 돌잔치 비용 기부



◆ 경사 기념 기부

서른 번째 생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 1000일의 시간, 우리 아이
입학과 부모님의 생신까지 기념일을 더욱 특별하게, 소중한 날들을
나눔으로 기념해 보세요.
[나눔 방법] 커를기념일, 결혼기념일, 생일, 환갑/고회연 기념 기부

◆ 그 밖의 기념 기부

나의 첫 취업, 첫 작품, 첫 성공을 위하여 친구, 동료와의 우정을 위하여
나와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기부 천사가 되어 보세요. 나눔은 기쁨입니다.
[나눔 방법] 각종 모임, 지인 이름으로 기부하기,
팬클럽 이름으로 기부하기, 책 인지세 기부하기



알라원 마을로 가는 다리



민다나오에 핀 평화의 꽃

행복기부 참여방법

기부금은 여러 나라의 굶주린 아이들에게 전달되며
보내주신 <행복기부> 내역은 다음 회 JTS 소식지에 기재됩니다.

기부방법 하나.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기부방법 둘. 직접 송금

※ <행복기부>는 입금 후 반드시 전화연락을 주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행복기부>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86-01-0339-254 (사) 한국제이티에스

<JTS와 함께 하세요>

굶주리는
지구촌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어주세요

지난 5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BTN 불교TV에서는 <JTS, 정토를 일구다>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지난 호(JTS 소식지 2012년 7·8월 호)에서는 총 2부로 이루어진 다큐멘터리의 1부
인 "라타나끼리에 뿌려진 희망의 씨앗"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캄보디아 라타나끼리의 다섯 개 학교
준공식에 참여한 법륜 스님의 일정을 조명한 방영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필리핀JTS 사업장을 다
룬 "민다나오에 핀 평화의 꽃" 편을 소개합니다. <JTS, 정토를 일구다>는 BTN 불교TV 홈페이지
(<http://www.btn.co.kr>)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글쓴이 편집부

캄보디아 라타나기리에 희망의 씨앗을 뿌린 후, 법륜 스님은 곧바로 필리핀 민다나오에 평화의 꽃을 피우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민다나오는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자 대표적인 분쟁 지역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 지역에 거주하던 이슬람 교도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이주해 온 카톨릭교도들과 대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주민과 이주민의 대립은 종교 분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40여 년 동안 카톨릭, 무슬림, 그리고 원주민의 분쟁으로 14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리로 시작된 알라원 마을과의 인연 종교 분쟁과 빈곤, 문맹 문제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민다나오가 JTS와 인연을 맺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2002년 법륜 스님은 아시아의 노벨평화상이라 불리는 '라몬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했습니다. 법륜 스님은 필리핀 현지의 종교 분쟁 해결에 도움을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2003년 교육 지원으로 시작한 필리핀JTS의 사업은 이제 원주민들에게 농업 기술을 가르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번에 스님이 방문한 곳은 '알라원 마을'입니다. 필리핀JTS 활동가 송지홍씨는 마을로 들어가는 다리의 유래를 이렇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알라원 마을에 가려면, 이 계곡을 무조건 건너야 해요. (원래 다리는) 대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비만 오면 부러지곤 했어요. (그래서) 다리가 필요하다는 마을 사람들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정부의 어떤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이 다리부터 먼저 지어 보자, 하고 JTS가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철 와이어와 대나무를 엮은 다리를 놓는 것으로 시작한 JTS의 활동은 알라원 마을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먼저 학교가 들어섰습니다. 여기서도 JTS는 지역 주민들의 자립을 중요시하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교사가 없어 학교 운영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스님은 주민들에게 정말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

하면 직접 발로 뛰어 교사를 데려오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노력한 결과로 학교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앞에 작은 텃밭도 생겼습니다. 이게 대단한 것이냐고 묻는 질문에, 송지홍 활동가는 알라원 사람들이 농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일러 줍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지천에 널려 있는 것들을 먹었는데, 지금은 자기 주변의 공간을 가꾸기 시작한 거죠.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마을을 스스로 가꾸려는 시도가 시작된 겁니다."



송코 평화센터 준공식에 참여한 법륜 스님의 모습

이슬람식 기도와 스님의 독송 소리 비가 오는 알라원 마을을 뒤로 하고 스님 일행은 '라눈'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일행은 다물룩시(市) 시장 로미오 티옹코씨와 일정을 같이 했습니다. 취임 이후 다물룩시의 분쟁을 큰 폭으로 감소시킨 티옹코 시장은 교육과 학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저에게 교육이란 아이들의 미래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저는 JTS의 학교 설립 사업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티옹코 시장은 민다나오 지역의 분쟁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법륜 스님과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행의 행선지는 '키타스 학교'였습니다. 공사가 끝난 것을 축하하기 위한 준공식에 참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스님 일행과 마을 사람들은 함께 모여 학교를 통해 마을 주민들의 삶이 한층 나아지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런데 준공식 행사에서 재미있는 현상이 발

견됩니다. 먼저 주민들이 이슬람 방식으로 기도를 하고 난 후, 법륜스님도 목탁을 두드리며 독송을 읊은 것입니다. 두 목소리는 묘하게 어우러져 키타스 학교를 가득 채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종교의 의식이 학교라는 공간 속에서 하나로 이어진 셈입니다. 카톨릭 교도들을 이주시켜 이슬람 원주민들의 터전을 빼앗은 정부의 정책과는 대비되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슬람식 기도와 함께 울려 퍼진 불교의 독송 소리는, 나눔과 사랑이라는 가치 아래에서 종교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전히 분쟁은 민다나오에 존재합니다. 지금도 여러 무장단체들이 정부군과 대치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다통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 왔고, 만성적인 불안과 가난이 이 지역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학교가 존재하는 덕분일 것입니다. 키타스 학교 준공식에서 만난 한 남자는, 한 팔에는 총을 메고 한 팔에는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바이안이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아이는 자신과 같은 불행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며 소망을 말합니다. "아이들이 입학해서 고통 받는 일 없이 무사히 졸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무가 자라길 바라며 품에 아이를 꼭 안고 있던 바이안의 희망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삶을 물려주고 싶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꿈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법륜스님은 희망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우리나라의 사례를 예로 듭니다. '마카파리 고등학교' 착공식에서 스님은 '한국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이 바로 교육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배움을 통해 빈곤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입니다. 변화에 대한 믿음과 열망은 민다나오 각지에 지어지고 있는 학교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이어 필리핀에서도 법륜 스님은 변화를 만들어나는데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누가 학교를 지었느냐는 스님의 질문에 아이들이 JTS가 지었

다고 답하자, 스님은 JTS가 아니라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지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부모님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지은 학교이니 아이들을 꼭 학교에 보내주어야 한다고 부탁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만 가능함을 강조한 말이었습니다.

준공식 행사가 모두 끝나고 법륜스님과 티옹코 시장은 함께 망고나무를 심었습니다. 스님은 손수 흙을 떠서 나무를 심은 뒤 말합니다. "이 망고나무가 자라서 맛있는 망고가 주렁주렁 달리듯이, 우리 아이들도 잘 자라서 이 세상에 유용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다나오 사람들의 바람과 지역사회의 노력, 그리고 JTS의 활동이 좋은 밑거름이 되어, 하루 빨리 망고나무가 실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해 봅니다.



송코 평화센터 준공식에서 나무를 심고 있는 법륜 스님

해외, 국내 JTS NEWS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 왔을까요?
나라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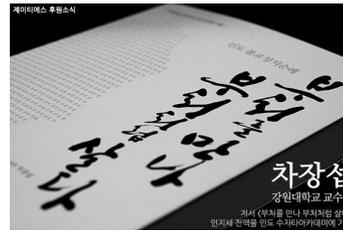


Korea 국내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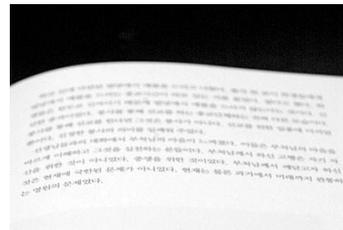
1. 우보한의원 '힐링핸즈(Healing Hands)' 캠페인

지난 7월 12일 한국JTS는 우보한의원에서 주최한 힐링핸즈 캠페인에 참여하였습니다. 힐링핸즈 캠페인은 소외계층 어린이·청소년 대상의 심신 치유 프로그램으로, 이날 행사에는 많은 단체들과 함께 한국JTS 박지나 대표님이 참석하였습니다. 한국JTS는 앞으로 우보한의원과 함께 국내외 어린이·청소년 지원 활동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2. 인도 수자타 아카데미에 인지세 전액을 기부한 차장섭 교수

지난 5월 인도 불교성지순례의 여정을 담은 책 『부처를 만나 부처처럼 살다』(역사공간, 2012)를 펴낸 강원대학교 차장섭 교수님께서 이 책의 인지세 전액을 인도 JTS의 수자타 아카데미 운영비로 기부하셨습니다. 강단에서 역사와 미술사를 가르치고 있는 차장섭 교수님은 인도 역사문화기행 중 인도 비하르주 동게스와리에 위치한 수자타 아카데미에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이 지역 16개 마을 주민과 교육 및 의료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인도JTS의 활동은 책의 지면을 통해서도 소개되었습니다.



“인도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우리나라 스님께서 제시하였다. JTS를 이끌고 계신 법륜스님이다.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보시를 하지 않으면 너무 아박한 것 같아 괴롭고 보시를 하면 그들이 숨에 빠지게 하여 영원히 그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 것 같아 힘들다. 이 같은 괴로움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실천한 것이 학교와 병원을 건립하여 무상교육과 의료지원을 하는 것이었다. 전정각산으로 오르는 길에 구걸을 하는 거지가 처음 이곳을 방문했던 4년 전에 비해 반으로 줄었다.” (138쪽)



인도 정부에서조차 손대지 못하는 일을 지역과 더불어 일구어 나가는 인도JTS의 활동에 감명 받은 차장섭 교수님은 이 책의 인지세 전액을 수자타 아카데미 운영비로 쾌척하기로 하셨습니다. 책의 뒤표지에는 “이 책의 인지세는 인도 보드카야에 불가촉천민을 위해 건립한 수자타 아카데미에 기부됩니다.”라고 명기하여 책을 읽으시는 많은 독자분들도 그 취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귀중한 인지세를 인도JTS에 기부해주신 차장섭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필요한 곳에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3. 삼각산 고등학교 '나비단' 학생들의 모금액 전달

지난 8월 22일 유영길 선생님과 함께 서울 삼각산 고등학교 봉사 동아리 '나비단' 소속 이다예, 이수연, 임지은, 김민석 학생이 JTS 사무실에 방문했습니다. '나비단' 동아리 30여 명의 학생들이 그간 빈그릇 운동 실천, 6월 환경의 달 맞이 음악회, 나눔콘서트, 캠페인, 플래시몹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모금한 215,310원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JTS 사무실에 와주신 선생님과 4명의 학생들은 JTS가 북한에 지원하는 아기 두유를 시음하고, 북한 영아원·유치원 지원 동영상도 관심 있게 시청하였습니다. '나비단' 학생들은 지폐와 동전 가득한 모금액을 직접 전달하며 앞으로도 꾸준히 모금 활동을 하여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돈은 캄보디아의 오지 웅찬 지역에 학교를 짓는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소중하게 모아주신 금액은 캄보디아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ampaign to End Child Poverty
ALL my children
모두 우리아이입니다

후원회원 가입문의
(201)224-3834
www.jtsamerica.org



JTS
Campaign
to End
Child Poverty

1. 미국 JTS 'All my children' 캠페인 - 모두 우리 아이들입니다!

지난 5~6월 미국 JTS는 미국 지역정토회와 함께 "굶주린 지구촌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 주세요"라는 주제로 '필리핀·캄보디아 오지 마을 학교 지어주기'와 '아이들의 생명 짓줄-북한 아이들에게 영양 두유·우유 보내기' 모금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LA정토회는 바자회를, 시애틀정토회는 바자회와 김·생선 판매를 통해 모은 수익금을 보내주셨으며 여타 지역에서도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총 \$44,724.00입니다.

캠페인에 참여해주시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 아이가 밥을 먹을 때 굶는 아이들, 내 아이가 학교에서 마음껏 뛰어 놀고 배울 때 배움에서 소외되는 아이들, 내 아이가 치료받을 때 치료받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들'을 위해 소중히 잘 사용하겠습니다. 나누는 행복, JTS와 함께 해 주세요.

체크를 보내실 경우 payable at JTS America
후원금 보내시는 주소 1124 Abbott Blvd, Fort Lee, NJ07024
은행에 직접 입금할 경우 Bank of America (NY Branch)
예금주: JTS America 계좌번호: 4830 2705 7653
주소 1124 Abbott Blvd, Fort Lee, NJ07024
문의 (201)224-3834 / (516)734-1047
이메일 jtsamerica.ngo@gmail.com
사이트 www.jts.or.kr

나의 작은 정성이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학교가 되고 빵이 되며, 미래의 희망이 됩니다.
월 \$5이면 제3세계 아이들의 일주일 영양식이 됩니다.



우비용 비닐을 받고 기뻐하는 2학년 여학생들

1. 7월 전교생 우비용 비닐 지급

여름방학이 끝나고 우기가 찾아왔습니다. 수자타 아카데미에서는 매년 학생들에게 우비용 비닐을 지급합니다. 고깔 모양으로 생긴 이 비닐은 걸어서 학교에 오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팀별로 연습한 액션송을 선보이는 교사와 중학생

2. 7월 14일 TTT수련(액션송) 진행

수자타 아카데미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 중 둘째 주 토요일은 TTT(Train The Teacher) 수련을 하는 날입니다. 7월 TTT 수련 주제는 "액션송을 배워요"입니다. 유치원 아이들에게 노래와 율동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교사를 모두 즐겁게 배워보았습니다.



풀베기 하는 신입교사들

3. 7월 9일 ~ 13일 신입교사 오리엔테이션

2012년 신입교사 모집에는 수자타 아카데미 출신 대학생 3명과 미출신 대학생 2명이 지원하였습니다. 5일 간의 오리엔테이션 기간 동안 유치원 방문 및 방문 보고서 작성, 학교 수업 참가 및 시범 수업, 식사 분배, 쉬람단 등 많은 프로그램을 무사히 마친 후 최종 3명이 선발되어 함께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수자타아카데미 운동장에서 국기계양 하는 모습

4. 8월 15일 독립기념일 행사

8월 15일은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입니다. 수자타 아카데미에서도 인도의 독립을 기념하며 학생들 모두 국가를 연습하고, 국기계양대를 꾸미고, 축하공연을 준비하여 독립기념일 행사를 치렀습니다.



영양식을 받아가는 어머니들

5. 저체중아 영양식 지원

인도 JTS는 지난 6월 28일, 7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저체중아에게 영양식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양식은 달(인도에서 주식으로 먹는 콩) 4kg, 종합비타민 시럽 100ml, 식용기름 1L로 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두 달 동안 9명의 저체중아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극빈자 식량지원

6. 제 24차 극빈자 식량지원

7월 마지막 주에는 지난 3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극빈자 식량 지원을 진행하였습니다. 14개 마을 45명의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가정 등 극빈자들이 굶주림과 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식량 및 담요를 지급하였습니다.



마을 청소 및 소독

7. 전염병 방지를 위한 전체 마을 소독

우기가 되면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설사병, 피부병 등이 기승을 부립니다. 이에 대비하여 인도JTS 마을개발팀은 동게스와리 10여개 마을을 대상으로 질병의 근원지가 되는 물 웅덩이와 우물가를 청소·소독하였습니다. 특히 자그디스푸르 마을은 인도JTS 마을개발팀과 더불어 수자타 아카데미 학생·교사들이 한바음이 되어 마을을 청소하였습니다.



Philippine 필리핀



알라원 방문 후 찍은 단체 사진

1. 신입활동가 이재곤 파견

7월 12일 이재곤 활동가가 민다나오에 파견되었습니다. 파견 후 알라원, 만타부 등 9개 학교 및 현장 방문을 포함한 한 달 간의 교육을 받았으며, 앞으로 학교 건축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재곤 활동가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만타부 학용품, 가방 지원후 단체 사진

2. '다지고 싶은 학교 만들기 운동' 1 - 2012년 문구류 지원

필리핀JTS는 '다지고 싶은 학교 만들기 운동'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학용품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18일부터 8월 15일까지 총 9개 학교 2,000여명 학생들에게 가방, 공책, 필기구 등 학용품을 분배하였으며, 앞으로 4개 지역 1,000여명 학생들에게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키다마 1박 2일 프로그램중 꼬리잡기 게임 사진

3. '다지고 싶은 학교 만들기 운동' 2 - 1박 2일 학교 방문 프로그램

'다지고 싶은 학교 만들기 운동'의 두 번째 프로젝트는 1박 2일 학교 방문 프로그램으로, 학용품 지원, 결석 안하기 서약식, 수업 참관, 단체놀이, 가정방문, 교사 미팅, 마을 청소, 풀 뽑기 등으로 진행됩니다. 7월 동안 3개 학교를 방문하였는데, 학생들과 함께 한 단체놀이, 마을 청소, 과실수 주위 풀 뽑기 등 활동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마닐라 홍수피해 긴급구호 사진

4. 마닐라 수해 긴급구호

8월 초 시작된 집중 호우로 마닐라에 큰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필리핀JTS는 필리핀 정토회와 함께 8월 12일 산마테오 시, 바랑가이 보르고스 지역 520여명 수재민들에게 \$11,000 상당의 식량, 이불 등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키다마 학교 증축 현장 사진

5. 키다마, 블루안 학교 건축 진행 중

지금 키다마와 블루안 지역에서는 학교 건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무슬림 지역인 키다마는 라마단 기간(음력 6월 1일~30일) 동안 오전에만 작업할 수 있어 공사가 예정보다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9월 완공을 목표로 열심히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8월 중으로 타푸난, 인라보두 지역에서도 학교 건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마카파리 고등학교 건축 사진

6. 다물록 특별 프로젝트 진행 중

필리핀JTS와 다물록 시(市)가 함께 하는 다물록 프로젝트는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마카파리 국립 고등학교와 다물록 시 보건소 건축 공사는 우기에도 원활히 진행되고 9월 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9월에는 목욕장 상수시설과 태양열 건조장 건축을 시작하여 11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Cambodia 캄보디아



2013년사업후보지사전답사

1. 한국JTS 대표님과 실무자 현장 방문

7월 6일 캄보디아에 반가운 손님이 방문하였습니다. 한국JTS 박지나 대표님과 김혜원 캄보디아 사업팀장님이 4박 5일간 방문하여 사업 진행을 논의 및 점검하고 현지 활동가들을 격려하였습니다.



2013년사업후보지사전답사-주민들과함께

2. 2013년 사업후보지 사전 답사

7월 12일~20일에는 2013년 사업후보지를 방문하여 1차 사전 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을 만나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사업 진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초적인 정보들을 수집하였습니다.



땅아마을 MOA 체결

3. MOA 체결 및 학교 건축 시작

8월 6일~15일에는 타벵고로움, 땅아, 웅찬 마을과 MOA를 체결한 후 학교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지 활동가들이 그동안 꾸준히 마을 주민들과 지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노력한 귀중한 결실입니다.



Indonesia 인도네시아



TK Uba 개원식

1. TK Uba 개원식

8월 23일 유치원 TK Uba의 개원식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JTS의 2011년 프로젝트로 완공한 5개 유치원 중 하나입니다. 개원식은 지역 유치들과 마을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곧 신입 원생들을 받을 예정입니다.



Myanmar 미얀마



타나카를 바른 아이

1. 식수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현재 5개 마을을 답사중입니다.

마을 이름은 칼라뽀네(Kalapone), 뉘우트 폰드(Nyunt pound), 목룟곤(Myokloutgone), 산따왈리(Shantawlay), 교곤(Kyogone)입니다. 그리고 미얀마에 NGO단체 등록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후원인의 소리



법륜스님의 강연 영향도 있었고 만원으로 제가 행복지기 위해서 라고 해주죠~
-서원홍-

하루 빨리 평화통일이 이루어져 더 이상 굶는 어린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진미-

저의 작은 정성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데에 감사드립니다.
-김효미-

내년엔 더 큰 후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유경-

배고픈 사람이 없기를 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아미타불
-이명화-

노회경작가 드라마와 법륜스님의 이야기를 보고
-김보라-

독서를 하던 중 jts단체를 알고 나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강후남-

법륜스님의 책을 읽고 깨달은 바가 커, 작은 실천을 시작하려 합니다
-김서진-

오늘은 파견근무 100일째 되는 날 .. 22일 입재식때 법륜스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함께하고 싶습니다.
-강은주-

법륜스님의 즉문즉설을 통하여 나눔의 즐거움을 함께하고 싶어졌습니다.
-이진수-

굶주리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김성화-

아버님을 떠나보낸 자녀들이 작은마음 모아 굶주린 내 동포와 함께합니다
-이응노-

힐링캠프에 출연하신 법륜스님의 인터뷰를 보고 감명받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김무진-

타 NGO 단체에 후원하던 중, 사용내역이 투명하게 관리되는지 확인할 수 없고 종교색이 짙어서 찾아보다가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장희연-



새나눔회원 - 개인·단체 2012년 6월 30일 - 2012년 7월 31일

* 정기후원자 명단은 지면할애상 제외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후원 문의전화 02-587-8995

6월의 신규회원 복 한 결 연

2012002498	강미선	2012002549	김유경	2012002637	박재홍	2012002420	오병찬
2012002749	강미자	2012002709	김유경	2012002589	박종후	2012002758	오순옥
2012002580	강민정	2012002427	김유미	2012002502	박지희	2012002725	오유림
2012002759	강성우	2012002694	김윤화	2012002707	박진우	2012002581	오은지
2012002440	강정아	2012002841	김윤희	2012002808	박해숙	2012002560	오태경
2012002754	강후남	2012002840	김은숙	2012002724	박해연	2012002500	왕지유
2012002512	강희영	2012002507	김재숙	2012002719	박현중	2012002543	우미송
2012002433	강희철	2012002448	김정락	2012002599	박현주	2012002836	우정희
2012002504	고관순	2012002435	김정미	2012002596	박호성	2012002425	우지선
2012002540	고나경	2012002524	김정아	2012002457	방금선	2012002680	위가정
2012002450	고영미	2012002720	김정현	2012002415	방소연	2012002741	유동성
2012002824	고옥길	2012002797	김주연	2012002488	방윤지	2012002617	유영철
2012002535	고정심	2012002733	김진영	2012002441	배경아	2012002419	유정원
2012002658	고현덕	2012002593	김정연	2012002795	배성철	2012002458	윤서영
2012002445	구혜미	2012002887	김태순	2012002634	배수열	2012002528	윤선애
2012002740	권서영	2012002545	김현경	2012002679	배현철	2012002807	윤지혁
2012002667	권태욱	2012002446	김현순	2012002588	백정미	2012002823	이강순
2012002881	금민지	2012002810	김현순	2012002404		2012002614	이경남
2012002891	김형석	2012002879	김형준	사람과기술		2012002426	이경남
2012002693	김경남	2012002878	김형진	2012002541	서원홍	2012002442	이경희
2012002444	김경설	2012002852	김혜숙	2012002546	설희지	2012002786	이교문
2012002704	김기성	2012002635	김홍성	2012002424	손경임	2012002770	이근우
2012002821	김기승	2012002694	김희정	2012002451	손기선	2012002544	이동석
2012002788	김기화	2012002872	김대우	2012002732	김효정	2012002888	이명진
2012002796	김대심	2012002704	김기성	2012002501	김희정	2012002806	이보람
2012002872	김대유	2012002821	김기승	2012002671	김희정	2012002518	이상민
2012002746	김동건	2012002788	김기화	2012002699	김기영	2012002518	이상민
2012002833	김명희	2012002495	김미경	2012002798	김미영	2012002480	이상용
2012002587	김무진	2012002474	김미영	2012002676	김미화	2012002499	조민지
2012002495	김미경	2012002676	김미화	2012002708	김민주	2012002613	조성중
2012002798	김미영	2012002708	김민주	2012002540	김봄음	2012002747	이영미
2012002558	김선희	2012002540	김봄음	2012002785	김보라	2012002747	이영미
2012002849	김성희	2012002540	김봄음	2012002785	김보라	2012002747	이영미
2012002467	김송아	2012002540	김봄음	2012002785	김보라	2012002747	이영미
2012002439	김승은	2012002540	김봄음	2012002785	김보라	2012002747	이영미
2012002893	김연옥	2012002540	김봄음	2012002785	김보라	2012002747	이영미
2012002416	김영귀	2012002540	김봄음	2012002785	김보라	2012002747	이영미
2012002561	김영민	2012002540	김봄음	2012002785	김보라	2012002747	이영미
2012002598	김영상	2012002540	김봄음	2012002785	김보라	2012002747	이영미
2012002603	김옥자	2012002540	김봄음	2012002785	김보라	2012002747	이영미

2012002739	임은진	2012002837	현진오	2012002425	우지선	2012002447	박기홍
2012002582	임의성	2012002889	홍상희	2012002680	위가정	2012002756	박노동
2012002725	오유림	2012002249	유정원	2012002578	유정원	2012002462	박명숙
2012002581	오은지	2012002528	윤선애	2012002614	이강희	2012002436	박선미
2012002643	임한상	2012002264	이강희	2012002442	이경희	2012002505	박선희
2012002875	임혜영	2012002675	황덕림	2012002884	이성재	2012002781	박순화
2012002750	장서윤	2012002632	황미림	2012002884	이성재	2012002781	박순화
2012002831	장세훈	2012002612	황선옥	2012002898	이양희	2012002462	박민정
2012002742	장소영	2012002883	이의영	2012002883	이의영	2012002503	박문구
2012002437	장용경	2012002594	이재식	2012002594	이재식	2012002462	박명숙
2012002856	장은영	2012002509	이정현	2012002486	이혜진	2012002782	박명숙
2012002794	장은정	2012002486	이혜진	2012002865	이효성	2012002503	박문구
2012002897	장희연	2012002865	이효성	2012002897	장희연	2012002462	박민정
2012002539	전수경	2012002582	임의성	2012002872	김기화	2012002672	박상은
2012002514	전종백	2012002582	임의성	2012002746	김동건	2012002436	박선미
2012002547	정미현	2012002611	임지영	2012002587	김무진	2012002505	박선희
2012002670	정세정	2012002856	장은영	2012002529	김서진	2012002599	박현주
2012002482	정세현	2012002897	장희연	2012002529	김서진	2012002441	배경아
2012002426	이경남	2012002529	김서진	2012002442	조현득	2012002546	설희지
2012002442	이경희	2012002529	김서진	2012002482	조현득	2012002655	성지민
2012002786	이교문	2012002514	전종백	2012002482	조현득	2012002424	손경임
2012002770	이근우	2012002514	전종백	2012002482	조현득	2012002424	손경임
2012002544	이동석	2012002497	조소희	2012002482	조현득	2012002424	손경임
2012002888	이명진	2012002497	조소희	2012002482	조현득	2012002424	손경임
2012002806	이보람	2012002737	주선애	2012002737	주선애	2012002424	손경임
2012002518	이상민	2012002822	진언재	2012002822	진언재	2012002424	손경임
2012002480	이상용	2012002536	천유라	2012002482	정세현	2012002424	손경임
2012002884	이성재	2012002657	최인정	2012002838	정준민	2012002424	손경임
2012002537	이순희	2012002752	최평길	2012002497	조소희	2012002424	손경임
2012002747	이영미	2012002771	하경화	2012002737	주선애	2012002424	손경임
2012002747	이영미	2012002732	김효정	2012002822	진언재	2012002424	손경임
2012002410	이우연	2012002830	홍수연	2012002497	조소희	2012002424	손경임
2012002624	이은숙	2012002447	박기홍	2012002633	홍재기	2012002424	손경임
2012002439	이은정	2012002756	박규남	2012002497	조소희	2012002424	손경임
2012002409	이응세	2012002578	박도연	2012002497	조소희	2012002424	손경임
2012002883	이의영	2012002782	박명숙	2012002497	조소희	2012002424	손경임
2012002594	이재식	2012002462	박민정	2012002497	조소희	2012002424	손경임
2012002784	이종현	2012002672	박상은	2012002497	조소희	2012002424	손경임
2012002485	이지연	2012002531	박수진	2012002497	조소희	2012002424	손경임
2012002684	이지효	2012002531	박수진	2012002497	조소희	2012002424	손경임
2012002629	이진수	2012002700	박정현	2012002497	조소희	2012002424	손경임
2012002866	이진혁	2012002876	박태윤	2012002497	조소희	2012002424	손경임
2012002452	이진희	2012002808	박혜숙	2012002497	조소희	2012002424	손경임
2012002800	이진희	2012002599	박현주	2012002497	조소희	2012002424	손경임
2012002454	이현경	2012002441	배경아	2012002497	조소희	2012002424	손경임
2012002809	이현자	2012002241	배경아	2012002497	조소희	2012002424	손경임
2012002744	이혜경	2012002517	최희연	2012002497	조소희	2012002424	손경임
2012002595	이혜숙	2012002487	최윤정	2012002497	조소희	2012002424	손경임
2012002486	이혜진	2012002657	최인정	2012002497	조소희	2012002424	손경임
2012002486	이혜진	2012002657	최인정	2012002497	조소희	2012002424	손경임
2012002600	엄현정	2012002871	최충훈	2012002497	조소희	2012002424	손경임
2012002877		2012002752	최평길	2012002497	조소희	2012002424	손경임
2012002753	연기현	2012002674	최혜진	2012002497	조소희	2012002424	손경임
2012002826	예운주	2012002771	하경화	2012002497	조소희	2012002424	손경임
2012002843	오동희	2012002865	한영미	2012002497	조소희	2012002424	손경임
		2012002642	한혜진	2012002497	조소희	2012002424	손경임
		2012002668		2012002497	조소희	2012002424	손경임
			햇신티네	2012002497	조소희	2012002424	손경임

인도 결핵 퇴치

2012002425	우지선	2012002447	박기홍	2012002451	손기선	2012002794	장은정	2012002676	김미화	2012002488	방윤지
2012002680	위가정	2012002756	박노동	2012002790	손선숙	2012002829	장흥기	2012002708	김민주	2012002441	배경아
2012002578	유정원	2012002462	박명숙	2012002897	송수지	2012002897	장희연	2012002540	김봄음	2012002408	배인환
2012002528	윤선애	2012002756	박명숙	2012002591	송수진	2012002514	전종백	2012002592	김봉찬	2012002656	백승빈
2012002614	이강희	2012002462	박민정	2012002412	송태석	2012002547	정미현	2012002479	김상학	2012002404	
2012002442	이경희	2012002672	박상은	2012002762	명 주	2012002755	정선주	2012002529	김서진	사람과기술	
2012002884	이성재	2012002636	박수진	2012002636		2012002482	정세현	2012002849	김성희	2012002461	서인혜
2012002898	이양희	아이치메듀케어센터(주)		2012002718	정은미	2012002825	정은미	2012002546	김승은	2012002408	배인환
2012002883	이의영	2012002738	안민지	2012002689	양은숙	2012002689	양은숙	2012002598	김영상	2012002655	성지민
2012002594	이재식	2012002789	안주숙	2012002696	양은숙	2012002722	제갈원	2012002603	김옥자		



2012002624 이은숙
2012002409 이용세
2012002883 이익영
2012002594 이재식
2012002456 이정원
2012002855 이정태
2012002509 이정현
2012002784 이종현
012002485 이지연
2012002800 이진희
2012002454 이현경
2012002744 이해경
2012002486 이해진
2012002839 이화연
2012002865 이호성
2012002494 임미정
2012002767 임수희
2012002739 임은진
2012002582 임의성
2012002643 임현상
2012002886 임혜순
2012002692 임효진
2012002750 장서윤
2012002742 장소영
2012002856 장은영
2012002794 장은정
2012002897 장희연
2012002539 전수경
2012002514 전종택
2012002520 정동미
2012002670 정세정
2012002482 정세현
2012002641 정연심
2012002450 정영희
2012002854 정재현
2012002453 정해수
2012002626 조동현
2012002497 조소희
2012002627 조정원
2012002422 조현득
2012002895 주미경
2012002799 진여경
2012002536 천유라
2012002736 최수영
2012002657 최인정
2012002871 최종훈
2012002752 최평길
2012002459 최현경
2012002674 최혜진
2012002771 하경화
2012002586 한영미
2012002668 햇산들네
2012002618 흥소희
2012002633 흥재기

필리핀

2012002675 황덕주
2012002612 황선옥
2012002859 황정현
2012002658 고현덕
2012002788 김기화
2012002746 김동건
2012002587 김무진
2012002449 김법석
2012002527 김삼진
2012002529 김서진
2012002825 김승은
2012002721 김영관
2012002561 김영민
2012002598 김영성
2012002549 김유경
2012002593 김창언
2012002760 김태진
2012002761 김효광
2012002732 김효식
2012002685 박경식
2012002756 박노동
2012002782 박명숙
2012002462 박민정
2012002577 박성원
2012002472 박시윤
2012002637 박재홍
2012002876 박태윤
2012002599 박현주
2012002441 배경아
2012002408 배인환
2012002659 보명산(부)
2012002546 설희지
2012002413 손창범
2012002811 심희정
2012002636 이경희
2012002884 이성재
2012002898 이양희
2012002883 이익영
2012002594 이재식
2012002509 이정현
2012002486 이해진
2012002865 이호성
2012002834 임소정
2012002582 임의성
2012002692 임효진
2012002856 장은영
2012002897 장희연

2012002514 전종택
2012002559 정동화
2012002776 정민현
2012002670 정세정
2012002482 정세현
2012002854 정재현
2012002699 조민경
2012002499 조민지
2012002497 조소희
2012002397 최영순
2012002657 최인정
2012002752 최평길
2012002771 하경화
2012002729 홍윤성
2012002633 흥재기
2012002612 황선옥
2012002700 박정현
2012002876 박태윤
2012002808 박해숙
2012002599 박현주
2012002441 배경아
2012002546 설희지
2012002655 성지민
2012002424 손경임
2012002701 손인자
2012002636 아이지예듀케이션(주)
2012002579 안대현
2012002710 양진영
2012002877 에이커스수학학원
2012002420 오병찬
2012002425 우지선
2012002680 위가정
2012002419 유정원
2012002528 윤선애
2012002614 이강희
2012002442 이경희
2012002884 이성재
2012002898 이양희
2012002883 이익영
2012002594 이재식
2012002509 이정현
2012002486 이해진
2012002865 이호성
2012002834 임소정
2012002582 임의성
2012002611 임지영
2012002856 장은영
2012002652 장혜련
2012002897 장희연
2012002514 전종택
2012002482 정세현
2012002838 정준민

**7월의 신규회원
북한결연**

2012002497 조소희
2012002422 조현득
2012002737 주선애
2012002822 진언재
2012002536 천유라
2012002657 최민정
2012002752 최평길
2012002771 하경화
2012002496 한수하
2012002830 홍수연
2012002633 흥재기
2012002612 황선옥
2012003098 김중순
2012002905 김진권
2012002903 김진욱
2012002956 김현주
2012003113 김홍진
2012002913 김희정
2012002952 남정희
2012003099 노경희
2012003063 노선영
2012003084 도연
2012002939 류미
2012003151 문경희
2012003048 문희정
2012003093 박세국
2012003181 박세미
2012002968 박연기
2012003022 박영만
2012003080 박은주
2012002921 박정미
2012003069 박진이
2012002944 방금란
2012003036 배정연
2012003095 백미순
2012003105 공다영
2012003140 객은정
2012002972 권경미
2012002955 권미란
2012003167 권순갑
2012003138 권오연
2012003179 권은지
2012003166 김경아
2012003152 김경우
2012003008 김경화
2012003076 김경희
2012003041 김규남
2012002941 김나연
2012003039 김나영
2012003065 김대민
2012002967 김명숙
2012003162 김미경
2012003145 김미경
2012003161 김미경
2012003070 김민경
2012002945 김민재
2012003019 김민정
2012002923 김병곤
2012002908 김보윤
2012002901 김성욱
2012003184 김옥식
2012003160 김용욱
2012003116 김유미
2012003139 김윤경
2012002910 김은주
2012003024 김충분

2012003126 이미경
2012003025 이상목
2012003092 이상현
2012002986 이선경
2012002970 이소담
2012003068 이소연
2012002971 이수경
2012003164 이수민
2012002907 이승원
2012003158 이영미
2012002985 이영욱
2012002958 이영주
2012002954 이은영
2012003090 이재순
2012003150 이정연
2012003067 이종오
2012003034 이준호
2012003001 이진
2012003141 이현희
2012003102 이화영
2012003088 이화준
2012003176 임상희
2012003086 임성민
2012002917 임영희
2012003071 정엘로디
2012003117 장용민
2012002957 전선애
2012003180 정미숙
2012003106 정종국
2012003018 정지연
2012002943 정창하
2012003006 조성웅
2012003029 조소미
2012002969 조영숙
2012002915 조영심
2012002928 조예원
2012003009 조은순
2012003175 조은정
2012003073 주영애
2012002974 지경숙
2012002914 진여스님
2012003118 차기영
2012003108 차은열
2012003007 최경미
2012003052 최미란
2012002946 최민화
2012002912 최인영
2012003155 최재호
2012002930 최정자
2012002927 최진홍
2012002906 최현규
2012002899 하태은
2012003083 한경미

2012002948 허혜선
2012003047 홍지현
2012003051 황수정
2012002929 황해은
2012002993 서경은
2012003006 조성웅
2012003163 김지은
2012003141 이현희
2012003014 염청산
2012002941 김나연
2012002922 엄선우
2012002917 임영희
2012002951 임은경
2012002966 박종원
2012002905 박진권
2012002947 세웅
2012003088 이화준
2012003138 권오연
2012003150 이정연
2012003034 이준호
2012003002 김용태
2012002937 오수정
2012002959 김현석
2012003106 정중국
2012002985 이영욱
2012002913 김희정
2012002899 하태은
2012003146 이명원
2012003179 권은지
2012002952 남정희
2012003097 김경희
2012002939 류미
2012002971 이수경
2012002938 공경진
2012003105 공다영
2012002955 권미란
2012003138 권오연
2012003138 권오연
2012003141 이현희
2012003051 황수정

2012002952 남정희
2012002939 류미
2012003093 박세국
2012002968 박연기
2012002990 박종식
2012003069 박진이
2012003132 백현숙
2012002993 서경은
2012003012 서행준
2012002984 성경희
2012003038 송미희
2012003156 샌스프츠
2012002922 엄선우
2012002934 여영
2012003014 염청산
2012003046 오희정
2012003146 이명원
2012003126 이미경
2012003081 이민주
2012003025 이상목
2012002971 이수경
2012002985 이영욱
2012002958 이영주
2012003150 이정연
2012003067 이종오
2012003034 이준호
2012003001 이진
2012003141 이현희
2012003102 이화영
2012003088 이화준
2012003176 임상희
2012003086 임성민
2012002917 임영희
2012003071 정엘로디
2012003117 장용민
2012002957 전선애
2012003180 정미숙
2012003106 정종국
2012003018 정지연
2012002943 정창하
2012003006 조성웅
2012003029 조소미
2012002969 조영숙
2012002915 조영심
2012002928 조예원
2012003009 조은순
2012003175 조은정
2012003073 주영애
2012002974 지경숙
2012002914 진여스님
2012003118 차기영
2012003108 차은열
2012003007 최경미
2012003052 최미란
2012002946 최민화
2012002912 최인영
2012003155 최재호
2012002930 최정자
2012002927 최진홍
2012002906 최현규
2012002899 하태은
2012003083 한경미

2012002941 김나연
2012003065 김대민
2012002967 김명숙
2012003161 김미정
2012003070 김민경
2012002931 김신주
2012003139 김윤경
2012003163 김지은
2012002905 김진권
2012002916 김해자
2012003050 김현숙
2012002956 김현주
2012003082 김혜영
2012003113 김홍진
2012003072 김효진
2012002913 김희정
2012002952 남정희
2012003084 도연
2012002939 류미
2012003124 박대규
2012002968 박연기
2012002921 박정미
2012002924 박희정
2012002958 배성은
2012003132 백현숙
2012003085 변유정
2012002993 서경은
2012003020 석정희
2012002902 설수정
2012002984 성경희
2012003066 손영미
2012003156 샌스프츠
2012003074 안세빈
2012003049 양창희
2012002922 엄선우
2012003014 염청산
2012003046 오희정
2012003037 윤순희
2012002909 윤지환
2012002970 이소담
2012002971 이수경
2012002985 이영욱
2012003125 이은정
2012003183 이정수
2012003182 이정호
2012003067 이종오
2012003087 이주섭
2012003001 이진
2012003141 이현희
2012003102 이화영
2012003088 이화준
2012003086 임성민
2012002917 임영희
2012002957 전선애

2012002965 정영미
2012003018 정지연
2012002911 정화진
2012003104 조경자
2012003006 조성웅
2012002969 조영숙
2012002920 조진현
2012002914 진여스님
2012002912 최인영
2012003155 최재호
2012002899 하태은
2012002948 허혜선
2012003105 공다영
2012002955 권미란
2012003138 권오연
2012002941 김나연
2012002945 김민재
2012002919 김재하
2012002905 김진권
2012002952 남정희
2012002939 류미
2012003017 서수지
2012003038 송미희
2012002918 송혜진
2012002922 엄선우
2012003014 염청산
2012002971 이수경
2012002954 이은영
2012003141 이현희
2012003006 조성웅

인도 결핵퇴치

2012002993 서경은
2012003006 조성웅
2012003163 김지은
2012003141 이현희
2012003014 염청산
2012002941 김나연
2012002922 엄선우
2012002917 임영희
2012002951 임은경
2012002966 박종원
2012002905 박진권
2012002947 세웅
2012003088 이화준
2012003138 권오연
2012003150 이정연
2012003034 이준호
2012003002 김용태
2012002937 오수정
2012002959 김현석
2012003106 정중국
2012002985 이영욱
2012002913 김희정
2012002899 하태은
2012003146 이명원
2012003179 권은지
2012002952 남정희
2012003097 김경희
2012002939 류미
2012002971 이수경
2012002938 공경진
2012003105 공다영
2012002955 권미란
2012003138 권오연
2012003138 권오연
2012003141 이현희
2012003051 황수정

인도 모자보급

2012002938 공경진
2012003105 공다영
2012002955 권미란
2012003138 권오연
2012003138 권오연
2012003141 이현희
2012003051 황수정

2012002952 남정희
2012002939 류미
2012003093 박세국
2012002968 박연기
2012002990 박종식
2012003069 박진이
2012003132 백현숙
2012002993 서경은
2012003012 서행준
2012002984 성경희
2012003038 송미희
2012003156 샌스프츠
2012002922 엄선우
2012002934 여영
2012003014 염청산
2012003046 오희정
2012003146 이명원
2012003126 이미경
2012003081 이민주
2012003025 이상목
2012002971 이수경
2012002985 이영욱
2012002958 이영주
2012003150 이정연
2012003067 이종오
2012003034 이준호
2012003001 이진
2012003141 이현희
2012003102 이화영
2012003088 이화준
2012003176 임상희
2012003086 임성민
2012002917 임영희
2012003071 정엘로디
2012003117 장용민
2012002957 전선애
2012003180 정미숙
2012003106 정종국
2012003018 정지연
2012002943 정창하
2012003006 조성웅
2012003029 조소미
2012002969 조영숙
2012002915 조영심
2012002928 조예원
2012003009 조은순
2012003175 조은정
2012003073 주영애
2012002974 지경숙
2012002914 진여스님
2012003118 차기영
2012003108 차은열
2012003007 최경미
2012003052 최미란
2012002946 최민화
2012002912 최인영
2012003155 최재호
2012002930 최정자
2012002927 최진홍
2012002906 최현규
2012002899 하태은
2012003083 한경미

2012002941 김나연
2012003065 김대민
2012002967 김명숙
2012003161 김미정
2012003070 김민경
2012002931 김신주
2012003139 김윤경
2012003163 김지은
2012002905 김진권
2012002916 김해자
2012003050 김현숙
2012002956 김현주
2012003082 김혜영
2012003113 김홍진
2012003072 김효진
2012002913 김희정
2012002952 남정희
2012003084 도연
2012002939 류미
2012003124 박대규
2012002968 박연기
2012002921 박정미
2012002924 박희정
2012002958 배성은
2012003132 백현숙
2012003085 변유정
2012002993 서경은
2012003020 석정희
2012002902 설수정
2012002984 성경희
2012003066 손영미
2012003156 샌스프츠
2012003074 안세빈
2012003049 양창희
2012002922 엄선우
2012003014 염청산
2012003046 오희정
2012003037 윤순희
2012002909 윤지환
2012002970 이소담
2012002971 이수경
2012002985 이영욱
2012003125 이은정
2012003183 이정수
2012003182 이정호
2012003067 이종오
2012003087 이주섭
2012003001 이진
2012003141 이현희
2012003102 이화영
2012003088 이화준
2012003086 임성민
2012002917 임영희
2012002957 전선애

2012002965 정영미
2012003018 정지연
2012002911 정화진
2012003104 조경자
2012003006 조성웅
2012002969 조영숙
2012002920 조진현
2012002914 진여스님
2012002912 최인영
2012003155 최재호
2012002899 하태은
2012002948 허혜선
2012003105 공다영
2012002955 권미란
2012003138 권오연
2012002941 김나연
2012002945 김민재
2012002919 김재하
2012002905 김진권
2012002952 남정희
2012002939 류미
2012003017 서수지
2012003038 송미희
2012002918 송혜진
2012002922 엄선우
2012003014 염청산
2012002971 이수경
2012002954 이은영
2012003141 이현희
2012003006 조성웅

필리핀

2012002675 황덕주
2012002612 황선옥
2012002859 황정현
2012002658 고현덕
2012002788 김기화
2012002746 김동건
2012002587 김무진
2012002449 김법석
2012002527 김삼진
2012002529 김서진
2012002825 김승은
2012002721 김영관
2012002561 김영민
2012002598 김영성
2012002549 김유경
2012002593 김창언
2012002760 김태진
2012002761 김효광
2012002732 김효식
2012002685 박경식
2012002756 박노동
2012002782 박명숙
2012002462 박민정
2012002577 박성원
2012002472 박시윤
2012002637 박재홍
2012002876 박태윤
2012002599 박현주
2012002441 배경아
2012002408 배인환
2012002659 보명산(부)
2012002546 설희지
2012002413 손창범
2012002811 심희정
2012002636 이경희
2012002884 이성재
2012002898 이양희
2012002883 이익영
2012002594 이재식
2012002509 이정현
2012002486 이해진
2012002865 이호성
2012002834 임소정
2012002582 임의성
2012002692 임효진
2012002856 장은영
2012002897 장희연





특별후원금 2012년 6월 30일 - 2012년 7월 31일

6월 후원금 복한결연

강민수	40,000
강용구	30,000
공유경	41,630
권연순	5,000
권교중	31,430
권수영	300,000
김명미	210,000
김광호	110,000
김영화	30,000
김미영	150,000
김미영-1	118,000
김민숙, 민수	30,270
김민지	50,000
김민호	200,000
김범주	50,000
김석구	150,000
김선호	60,000
김성남	100,000
김승연	100,000
김승운	50,000
김유경	30,000
김은경	50,000
김은숙	500,000
김정아	10,000
김종일	40,000
김현진	91,970
김혜영-딸내미 생일 후	원 30,000
김희미	50,000
김효정	10,000
노은희	2,760,000
도순희	50,000
목인병(김홍임)	100,000
문경수려원	157,460
민경애	40,000
민홍기	1,000,000
박미란	10,000
박별님	20,000
박수민	100,000
박찬원	5,000
박태근	1,300,000
박태화	1,000,000
박형준	1,083,300
서신근	600,000
소금자	20,000
손정남	10,000
송영조생일축하	20,000
송현주	270,290
실상사	453,000
심화정	5,000
아비님 조병식영가님 극	액왕생발원 500,000
양순덕	10,000
양승중	300,000

양태경	200,000
어머님 안정애영가님 극	액왕생기원 500,000
원형연	10,000
유순임	50,000
유승자	200,000
양재민	200,000
윤남숙	100,000
윤미숙	30,000
이경미	300,000
이광렬	50,000
이승은	100,000
이명자	1,000,000
이명희	20,000
이석창	500,000
이소영	1,500,000
이승은	50,000
이외숙	200,000
이원형	5,000
이철우	50,000
이호준	100,000
임진성	100,000
장명희	10,000
장진영	100,000
정명덕	50,000
정원자	50,000
정정운	300,000
조갑순	3,000,000
조대성	100,000
조신미	5,000
조장숙	43,220
조현식	50,000
주만기	27,180
최기선	206,000
최동백	10,000
최원	30,000
최정자-1	1,000,000
최정자	100,000
최정희	110,000
하승완	500,000
하지민	5,000
한승협	200,000
한승협	100,000
한신들네	10,000
허인영	200,000
홍동욱	100,000
황덕주	5,000
이주형	20,000
이철우	50,000
정인영	100,000
최동백	10,000
하지민	5,000
햇신들네	10,000
허인영	200,000
김석구	30,000
김민숙	50,000
김정아	10,000

인도결핵퇴치

김태은	10,000
김효정	10,000
도순희	20,000
동생 정중효 건강기원	50,000
박별님	20,000
양경아	200,000
유채민	50,000
이경선	500,000
이광렬	30,000
이명희	20,000
이승은	30,000
이완석	5,000
이원형	5,000
이철우	50,000
최동백	10,000
이호준	200,000
현창규	5,000
한희로운	10,000
황덕주	5,000

인도모자보건

김태은	10,000
김효정	10,000
도순희	20,000
동생 정중효 건강기원	50,000
박별님	20,000
양경아	200,000
유채민	50,000
이경선	500,000
이광렬	30,000
이명희	20,000
이승은	30,000
이완석	5,000
이원형	5,000
이철우	50,000
최동백	10,000
이호준	200,000
현창규	5,000
한희로운	10,000
황덕주	5,000

인도모자보건

권학대	4,000
김영화	30,000
김민지	29,772
김성운-:조부모님 기일	을 맞아 50,000
김석구	100,000
김민숙	50,000
김정아	10,000
김정연	300,000
김혜영	5,000
김혜영-딸내미 생일 후	원 20,000
최정자	10,000
나경권	100,000
나경주	100,000
나희원	100,000
도순희	20,000
박규민	100,000
박별님	10,000
유진희	100,000
유재민	100,000
이경희	1,000,000
이광렬	50,000
이명희	20,000
이승은	30,000
이철우	50,000
정인영	100,000
최동백	10,000
하지민	5,000
햇신들네	10,000
허인영	200,000
현창규	5,000
한희로운	10,000
황덕주	5,000

인도모자보건

박영옥	121,000
박형준	1,000,000
백영생기원	10,000
복한어린이들기	500,000
사랑, 감사	30,000
성지은	50,000
손민혁	100,000
신동현	50,000
신순이	54,490
신한	55,000
심경택영가	30,000
심유현	100,000
심춘화	10,000
안진우	10,000
안현준	10,000
양누리	100,000
양창호	10,000,000
염애순	40,300
에스케이카뮤니케이션즈	2,500
김범주	20,000
김범주	120,000
김석구	120,000
김신아	5,000
김영숙	400,000
김영민	2,000
김인숙	50,000
김재영	96,700
김정아	10,000
김정연	300,000
김진석	100,000
김태문	10,000
김형진	50,000
김희미	50,000
김효정	10,000
나정숙	10,000
남원 신내중학교	648,000
대덕심	50,000
대전정토화-불대아간반	45,000
도순희	30,000
이광숙	41,670
원	200,000
딸 정지람 생일 기념	100,000
명정장학금	200,000
문영주	10,000
민병도	100,000
이혜숙	500,000
이현숙	100,000
이화자	5,000
익명	2,000,000
김경숙	100,000
장규희후원	38,340
장영희	20,000
장수연	30,000

필리핀

장진영	30,000
장병만	56,000
정삼영	10,000
정선경	50,000
정선영	10,000
정선직	21,000
정수진	50,000
정암	50,000
정정운	22,000
정정훈	11,000
정정희	500,000
정진순	100,000
정혜선	100,000
조광연	46,000
조대진김순정	50,000
조윤성	50,000
홍수스님	300,000
차경화생일축원	100,000
차현서 차민서	45,950
최기원	1,000,000
최덕해	120,000
최동백	10,000
최은주	50,000
최정기	225,600
최해연	40,000
최형진	50,000
코오롱패션산업연구원-	2,166,000
김미진	5,000
한국JTS	490,000
한근석	50,000
함신들네	10,000
허인영	200,000
현창규	5,000
한희로운	5,000
황덕주	15,000
황유진	19,000

필리핀

최동백	10,000
허인영	200,000
현창규	5,000
황덕주	10,000

7월의 후원금 복한결연

김연수	1,000,000
강영희-1	30,000
강영희	30,000
강은주	1,000,000
강정숙	20,000
강영희	30,000
고성희	30,000
고수진	1,000
고영숙	16,000
고은	1,000
공연표	32,030
구영희	50,000
권정화	50,000
권현숙	100,000
김경미	100,000
김경자	50,000
김경희	50,000
김광자	20,000
김금순	177,450
김기훈	500,000
김덕수	50,000
김영숙	100,000
김명숙-1	200,000
김명자	50,000
김명홍	100,000
김미숙	50,000
김민응	30,000
김범주	50,000
김보공	50,000
김보송	50,000
김보영	20,000
김봉준	10,000
김삼선	10,000
김성규	100,000
김성남	230,000
김성민	290,000
김성수	30,000
김성희	100,000
김성희-1	10,000
김순영	50,000
김순필	30,000
김연금	100,000
김연희	10,000
김영림	30,000
김영식	20,000
김영조	10,000
김영주	1,000,000
김영희	3,000,000

7월의 후원금 복한결연

김은희	30,000
김인숙	50,000
김인희	100,000
김재춘	100,000
김정규	800,000
김정래	10,000
김정미	300,000
김정운	500,000
김주용	100,000
김지숙	20,000
김지혜-서강덕군의 첫돌	1,000,000
김진석	100,000
김춘희	100,000
김현숙-1	30,000
김현숙	500,000
김현정	10,000
김홍임	100,000
김희경	50,000
김희숙	30,000
니승연	100,000
남득술	10,000
남승욱	10,000
노광철	100,000
도미라	10,000
도순희	30,000
두주희	100,000
마경희	50,000
문경애	100,000
문슬기	50,000
문철호	100,000
문호성	300,000
민홍균	20,000
박계선	50,000
박별님	30,000
박성훈	1,000,000
박승자	100,000
박순화	50,000
박연화	10,000
박영숙	20,000
박영옥	10,000
박윤주	20,000
박지은	20,000
박재권	50,000
박중운,배연아영가님 극	액왕생 발원 300,000
박주영	170,000
박창자	10,000
박태화	1,000,000
박해자	50,000
박희준	5,000
박형준	2,000,000
박효순	10,000
배선화	100,000
변유경	5,000
변철호	43,000
서강원	30,000

7월의 후원금 복한결연

서상영	15,000
서양숙	100,000
서예원	50,000
성정옥	100,000
소숙희	20,000
손은희	50,000
손은주	50,000
송은지	5,000
송재환	100,000
신순말	100,000
신순숙	100,000
신인자	10,000
신정균	36,000
신현희	30,000
심학순	20,000
심효은	10,000
안병주	100,000
안산명	101,000
안혜원	50,000
양태희	100,000
양은은	100,000
여승진	100,000
여인옥	100,000
오말순	100,000
오소연	10,000
오윤숙	50,000
오진미	50,000
유광화	1,000
유길수	100,000
유승범	10,000
유정자	130,000
유채민	150,000
유현영	10,000
윤경화윤성원윤진옥	180,000
윤영미	260,000
윤정성	20,000
윤주영	10,000
윤태경	10,000
윤표	50,000
이간우 김승이결혼축하	금 2,000,000
이경희(금강주)	100,000
이광설	10,000
이동규영가님왕생극락발	원 301,000
이만영	100,000
이명숙	20,000
이명숙-1	10,000
이명순-1	20,000
이명순-2	100,000
이명희	60,000
이미경	50,000
이미선	10,000
이미숙	30,000

7월의 후원금 복한결연

이미은	5,000
이병호	100,000
이보림	10,000
이상곤	200,000
이서현	150,000
이성소	5,000
이성화	10,000
이수형	100,000
이순희	30,000
이영실	150,000
이영자	5,000
이영재	5,000
이영주	200,000
이옥선	100,000
이홍식	50,000
이원형	10,000
이위선	100,000
이은실	30,000
이영노	2,000,000
이점숙	100,000
이정희	100,000
이주는	50,000
이주현	500,000

해외JTS 후원금

2012년 6월 30일 - 2012년 7월 31일

후원 문의전화 02-587-8995

김경화 50,000	손창남 100,000	정명화 60,000
김경희 100,000	송재환 100,000	정해윤 42,000
김기훈 300,000	신한 35,000	조순덕 10,000
김남일 10,000	심춘화 10,000	조연옥 300,000
김영애 10,000	심효은 16,873	조영훈 200,000
김미선 130,000	아이지에듀케어(선주)	조옥현 100,000
김미정 50,000	100,000	조은숙 100,000
김보윤 10,000,000	안지혜 70,000	조흥식 20,000
김봉진 20,000	양명숙-둘째아들생일축	차장섭 2,000,000
김상선 3,000	하 50,000	최도현 20,000
김상호 150,000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최문경 70,000
김양우 20,000	1,300	최미란 14,890
김여경 50,000	우동균 50,000	최병욱 50,000
김영일 20,000	우안녕 550,000	최은영 20,000
김영민 11,000	우해수 50,000	최장기 150,000
김은후 10,000	유길수 100,000	최진혁 20,000
김은희 10,000	유덕원 10,000	최창수 10,000
김인숙 50,000	유채민 100,000	최해련 50,000
김정연 300,000	윤승미 10,000	하경선 30,000
김지혜-서강덕군의 첫돌	이경자 10,000	하영희 50,000
을 기념 10,000	이계순 50,000	한규현 200,000
김진규 20,000	이금병영가극락왕생발원	한미용 78,250
김진아 10,000	5,000,000	해파린 161,300
김태민 20,000	이마트단체지원20,623	허인영 200,000
김한정 50,000	이명숙 10,000	황성민 10,000
김형규 30,000	이영희 40	황윤원 50,000
김형진 50,000	이미경 50,000	
김혜영 10,000	이보림 10,000	
김희숙 30,000	이서현 100,000	
나윤주 138,000	이승현 1,000,000	
남재환 400,000	이승호 1,000,000	
딸 박경민 장학금	이영순 30,000	
250,000	이연옥 50,000	
마음 50,000	이영조 53,000	
맹속호 30,000	이영희 20,000	
명정정학금 200,000	이몽식 50,000	
모순희 20,000	이정민 5,000	
무명 132,000	이정연 30,000	
무화 50,000	이정은 35,000	
박범곤 30,000	인천이태용 권문기	
박범곤 40,000	30,000	
박분남 20,000	일산고양자유학교	
박선희 5,000	204,000	
박영욱 126,000	임춘자 30,000	
박유영 50,000	임해수 50,000	
박주원 30,000	장명희 20,000	
박지영 100,000	전성은 30,000	
박창정 300,000	전호권 54,000	
박형선 20,000	정길순 10,000	
배순남 100,000	정덕 100,000	
보람사(능현스님)	정선영 20,000	
3,000,000	정선희 30,000	
북한동포돕기후원금	정영수 300,000	
120,000	정윤정 20,000	
소진호 100,000	정재윤 30,000	
손영훈 100,000	정재호 700,000	
손윤리 120,000	정진관 50,000	

미 국 J T S

하보경 \$500.00
원낙선 \$100.00
하인경 \$200.00
김선희 \$40.00
이경택/김명례 \$5,000.00
서성애 \$100.00
황광성 \$1,000.00
Andrew Choi \$400.00
김진엽 \$100.00
김정남 \$15.00
채정연 \$150.00
LA JUNGTO \$526.00
변광립 \$100.00
이경택/김명례 \$1,000.00
김은영 \$20.00
김경숙 \$100.00
이상실/이원심 \$500.00
김수경 \$40.00
이동영 \$300.00

방 국 J T S

김도연 \$100
김애진 \$60
이경란 \$16
조윤희 \$150
홍정혜 \$200
황소연 \$100
봉금례 \$100

인 도 J T S

배명숙 \$2,450

필 리 핀

김경화 50,000
김수진 50,000
김인숙 50,000
김지혜-서강덕군의 첫돌
을 기념 10,000
김희숙 30,000
남승욱 10,000
박창정 300,000
서예린 20,000
송재환 100,000
유순임 20,000
이명희 40,000
이미경 50,000
이보림 10,000
지봉초등학교 3학년 2반
30,620
허인영 200,000
황윤원 30,000

* 양해바랍니다 지난 7월8월에 실린 특별성금 5/24 윤경화 윤성원, 윤진욱 18,000원이 아니고 180,000원입니다



나눔저금통 현황

2012년 6월 30일 - 2012년 7월 31일

후원 문의전화 02-587-8995

거제

원마트첫병 32,090 이경애 27,830

구미

권도경 9,450 김명숙 59,610 손신락 25,640 이현숙 39,600

대구

김봉준2개 16,580 김은영 37,750 남유선 16,560 류OO 33,100 마트프라임(목련시장) 22,610 무명 41,07 무명 31,650 박광성 22,660 박동진 28,330 백명숙, 김창용 50,670 백정숙 70,930 성준호 27,160 소미현 72,500 손정희(재상) 28,330 송민규 27,690 송주영29,030 염정희, 조재춘 51,010 예금이자 54 윤암교교3학년학생들 32,530 윤경화2개 75,820 윤성원2개 66,980 윤여영 18,080 윤진목 20,950 이마트마일리지 43,085 이미나 23,190 이승연 79,290 임금실 53,770 정영우, 장준우 19,510 정소영2개 109,000 차용백 55,050 최정엽 25,330

대전

오승연 58,000 김낙춘 37,840 김중수 41,700 김진근 28,080 김재영 36,530 무명 6,150 무명 7,330 무명 24,140 백도현 12,660 서춘자 21,200 자연드림 75,750

대전부사

권미희 23,200 무명 47,090 박찬영 91,600 보부삼마트 19,430 보부삼마트 9,040 보부삼마트 7,980 보부삼마트 10,650 장병윤 25,180 정애진 14,860 최화자 22,470

마산

무명 43,755 무명 9,430 박삼순 25,450 신정애 58,200

서울

김은주 33,720 구문학습포포지스 37,860 권윤서 55,660 권민태 33,250 기춘,연주 29,670 김민욱138,120 김정남 40,150 김현숙 26,870 김형순 68,580 무명 70,350 무명 12,580 무명 24,680 무명 27,860 무명 45,760 무명 17,650 무명 27,250 무명 25,900 무명 27,960 무명 15,130 무명 33,120 무명 11,770 무명 16,000 무명 22,660 무명 17,060 무명 21,610 무명 25,400 무명 17,000 무명 9,980 무명 4,360 무명 19,380 무명 26,430 무명 34,140 무명 24,890 무명 3,810 무명 17,340 무명 7,670 무명 33,370 무명 23,400 무명 34,400 무명 26,990 무명 29,510 무명 9,450 무명 25,100 박복순 13,080 박

정하17,960 박종은 59,290 박현숙849차 21,000 박해림 29,740 배진성 32,080 송명순 21,460 송미옥 35,000 송일호 47,100 신동민851차 23,900 신민자 12,230 유금선 5,630 유승이14,000 유음진 25,200 이나윤,이태경,이나경 16,070 이명선 24,200 이명정, 정호연 32,930 이성윤36,710 이영주 16,560 이채영, 이채원 38,820 임유경 36,560 정광(857차) 33,500 전창훈 19,220 조경미 14,440 조옥순 14,620 조옥순 16,730 조종상 46,180 진영준 37,440 최해련 27,020 한유미25,000 황윤성 22,520 황정민 12,150 GS구로동양 28,700 GS구로동양 14,050

수원

김민경 24,390 김영아 30,450 무명6개 122,455 윤미정 28,370 이정민,김평 19,250 이자숙 99,400 조영미 25,840 채원희 21,120

울산

김기숙 26,800 김도훈 77,570 대구식당(정말숙) 17,480 무명68,650 박기택 24,690 박희복 31,180 손득래 18,010 속미용실 42,510 안미향 21,950 오유정 36,940 울산번호판제작소 16,610 유정희 72,570 이진희,이건호 13,480 이상필 15,120 이지성 29,340 임순화 31,190 파스타부아는 24,770 하순희 1,130 화장품프라자 160,210

은평

무명 29,310 황리나 26,470

청원

김민주 12,370 김혜민 11,930 무명 18,998 사송현 28,220 장장숙 41,120

청주

김지혜 22,590 김하나 24,480 모금함 23,000 무명 24,460 무명 28,560 무명 28,480 무명 21,950 박원규 48,830 오경옥 24,850 원충준 10,940 전은영 15,830

포항

김동균 30,200 김은주 20,920 손윤희 36,800 임남숙 25,570

해운대

강소담 23,690 김병만 41,420 김보경 25,740 김복선 27,140 김복순3개 70,660 무명 68,770 무명 4개 124,770 박선희 39,640 박윤철 43,420 손은주 77,690 여름불대 13,780 윤재영 26,990 이순금 63,280 이재욱 24,520 정태모 20,390 최준서

23,000 최현중 15,330 통장이자 614

기타

(사)메디피스 9,540 97차일개저금통 390,000 98차 일개저금통 534,000 간지혜어 48,940 경주강동농협 41,390 기업은행은수동 26,240 김태균 97,130 김혜경 29,140 돼지저금통 251,590 박용의 24,720 살래국수 19,580 서은숙 34,390 소금자 20,000 소휴사 121,200 운암고3-1 70,200 울산현충ERP추진부 24,150 윤선임 127,140 이용경 61,830 이용인 76,930 인천서진영 62,070 장귀형후원 38,340 주시윤 23,180 주용근 15,340 지리산래국수 22,150 최미란 14,890 탁막미 381,900 태봉초교6학년이동현 24,290

거리모금 현황

2012년 06월 01일부터 2012년 07월 31일까지

구미 198,600 김삼숙 83,000 김인숙(열린법회) 869,260 남양주 143,270 대구 1,409,080 대전 173,340 동래 538,060 마산 201,160 마산코오롱사우나 275,470 서울 990,035 수원 290,050 울산 203,890 인천 122,840 입재식모금 65,900 평택 145,460 해운대 39,170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손길 - 자원봉사활동

지원하고 싶은 자원봉사를 선택하여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JTS 자원봉사 문의 02)587-8756



해외 자원봉사를 경험하세요

교육, 의료, 마을재건에 따뜻한 손길로 나눔을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손길들이 모여 만드는 나눔의 현장에 함께해주세요.
해외봉사 분야 : 건축, 농사, 회계, 의료, 언어, 교육 등

국내 자원봉사에 함께하세요

한국JTS 사무실에서, 프로젝트 캠페인 등 여러가지 나눔 활동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손길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주세요.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작은 재능으로 큰 마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시작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손길이 되어주세요.
국내봉사 분야 : 번역,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 후원관리, 영상, 출판/인쇄, 교육 등

아름다운 이웃을 만드는 나눔 - 나눔회원활동

지원하고 싶은 기금을 선택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JTS 나눔기금 문의 02)587-8995



나누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덜 쓰고 덜 가짐을 통해서 나누는 일은 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나눔회원으로 행복을 찾으세요

나눔회원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 신청서 작성을 통해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나눔으로 함께하세요

한국JTS 네이브 해피빈나눔 <http://happylog.naver.com/jtstogether>
한국JTS 나눔저금통 작은 저금통에 큰 마음 담기

[한국JTS 투명한 기금 운영알기]

JTS에서는 계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연 2회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소중한 기금의 운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